

CMI TIMES

April
2023



ISSUE SIX

Contents

President Address 04

Mark Hong (Dallas, TX, USA)

대표 이사말

홍마가 선교사(미국, 달라스)

Waiting for God to do a New Thing through Us 08

Jung Oh Gu (Busan, Korea)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구정오 목사(부산 미래로교회)

God Has Given Us the Great Commission

2023 GCMJ General Assembly Report . . 10

Timothy Lee (Dallas, TX, USA)

저희에게 선교지상명령을 주신 하나님

2023 GCMJ 총회보고

이 디모데 선교사(미국, 달라스)

The Great Commission (English Only) 14

Dr. Peter Chang (President of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USA)

Conference Reports

2023 Oceania Summer

Conference Report 27

Samuel Lee (Perth, Australia)

2023년 오세아니아 여름 수양회 보고

이 사무엘 선교사(호주, 퍼스)

2023 Argentina Summer

Conference Report 31

Ruth Lee Salas (Buenos Aires,
Argentina)

2023년 아르헨티나 여름수양회 보고

이 룯 선교사(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23 Cordoba (Argentina)

Summer Conference Report

New Life Church, Full Church 40

Juan Kim (Cordoba, Argentina)

2023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여름 수양회 보고

새 생명 교회, 충만 교회

김후안 선교사(아르헨티나,
코르도바)

2023 로마 유럽 CMI 리더수양회 보고 (Korean Only) 43

원폴리캡(이탈리아, 로마)



Mission Reports

Argentina Report

October 2022 - February 2023. . . 46
Ruth Lee Salas (Buenos Aires,
Argentina)
이 룯 선교사(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With the Three Hundred Men! (English Only)

CMI I Mission Report 48
President of BCD Shepherd Shanky
(I-Nation)

Dominican Republic Ezra School News (Korean Only) 52

박경원(느헤미야) 선교사 (도미니칸
공화국, 산티아고)

블라디보스토크 영광교회 소식 (Korean Only) 53

황돈연 선교사(러시아,
블리디보스토크)

로마에서 온 선교소식 (Korean Only) 55

원대식(폴리캅) 선교사 (이탈리아 로마)

Others

튀르키예(터키) 재난 구제헌금을
모금하면서 (Korean Only) . . 56
한사가랴 선교사(미국,
위스칸신 라크로스)

GCMC 구조 헌금을 받은 후 터키 주
재 이요셉 사장님 보고서 (Korean
Only) 57
이요셉 사장님(터키, 이스탄불)

2023 CMI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ext
Generation (Korean
Only) 59
장정완 한국 CMI 대표(한국, 서울)

인사말 (Korean Only) 60
박중용 한국 CMI 이사장(한국, 서울)

GCMC Representatives. 61



President Address

Mark Hong (Dallas, TX, USA)



Hallelujah! Dear CMI missionaries, CMI pastors, and second-generation leaders.

Happy New Year!

Welcome to the Global CMI General Assembly. Some of you might still wonder, "What is GCMi?" Let me explain using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as an example, which has 45,000 churches in the US.

Under SBC, there are two organizations;
1) 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
 supports overseas missionaries.
2) National Mission Board (NAMB);

supports church planting in the US. These two organizations function together to support the gospel work both domestically & globally.

Our GCMi is like that of IMB, in other words, the CMI missionaries' Network to support each other. I hope that clarifies GCMi's purpose.

Merriam Webster Dictionary's Word for the year 2020 was 'PANDEMIC.' The word for 2021 was 'VACCINE.' The word for 2022 should be Recovery or Revival but sadly the word was 'GASLIGHTING.' It is a word that describes psychological manipulation and abuse. Gaslighting has happened among spouses, with children, medically, racially, politically and institutionally. Our society is getting worse and worse. Yet we thank God that the Lord our God is with us. He is our Immanuel!

Evidently, GCMi launched on January 16th, 2020 in Sydney, Australia, right before the Covid-19 pandemic started. It was God's divine hand that GCMi was established; it allowed us to form a prayer network, relief network through fund raising, even reeducation and raising the 2nd generation.

During the past three years, our fund raising (\$440,000) was a living water to our suffering missionaries in the wilderness of the Covid-19 pandemic. In 2022, we started praying for the

vitality of each committee in the ministry. Indeed, each committee's work was vital as you will hear in the report.

Well, now we are in the beginning stages of 2023. Many people feel dark, stemmed from concerns of a collapsed economy, extreme political divide, gruesome natural disasters like the recent earthquake in Turkey.

Yet, we thank the Lord our God who promises good things to us who fully follow Him.

"I remain confident of this:
I w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living,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 Psalm 27:13-14 -

In Psalm 27, David says that the Lord God as our Light, Deliverer, Protector and our Help. So in the Lord God, David was confident that he w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regardless of his hard circumstances!

"I w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s this your confidence in the Lord too?

Currently, you may have faced hard, dark and painful situations. Don't just look at these current difficulties. Look up to the Lord; He is our Light, Deliverer, Protector and our ever present Help. This is why David says, "Wait for the Lord!" (너는 여호와를 바랄찌어다!)

Sometimes, waiting for the Lord seems like a waste of time and life. You feel you should act on your own first. You need to be patient and persevere all hardships. So David says, "Be strong and take heart!" (강하고 담대하라!) The Lord, who is our living and loving Father will never discourage us. He will change our place as the land of living and let us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The recent earthquake in Turkey killed more than 20,000 precious souls. It turned out to be the land of death. Living in these last days, we expect a lot more of such disasters. Moreover, we are in the land of death spiritually. Countless people are perishing in sin without God and without hope.

Our CMI missionaries suffer greatly to do the work of God. Some suffer with sicknesses. Some suffer with wayward children. Some suffer with extreme financial difficulties. Some suffer without any visible fruit.

Yet dear fellow coworkers, we have Good News in Jesus who died on the cross and rose from the dead. Through Him, we have the living hope in the kingdom of God. Thus we live in the land of the living; we w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 Great Global Revival,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coming to the Lord!
- Great Parousia – the return of the Lord Jesus in glory!
New heaven and New earth coming down from heaven!

So for us the year 2023 is not dark at all, but very bright in our Lord Jesus! It will be the greatest year! So let us fix our eyes on the Lord Jesus. Let us Wait for the Lord in doing His Precious Will! Amen. Let's say together: Be strong and take heart! Wait for the Lord!

GCMi 대표 이사말

홍마가 선교사(미국, 달라스)

할렐루야!

사랑하는 CMI 선교사님들, CMI 목회자님들, 2세 지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로벌 CMI 총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도 “GCMi가 뭔가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에 45,000개의 교회가 있는 남침례교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침례교 산하에 두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 1) 국제선교위원회 (IMB): 해외 선교사들 지원
- 2) 국내선교위원회 (NAMB): 미국에 처치 플랜팅을 지원

이 두 기구는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복음 사역을 잘 지원하는 기능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GCMi는 국제선교위원회 (IMB)와 같습니다. 서로를 돕기 위한 CMI 선교사들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이 GCMi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 희망합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의 2020년도 올해의 단어는 ‘팬데믹’이었습니다. 2021년도 단어는 ‘백신’이었습니다. 2022년도의 단어는 ‘회복 또는 부흥’이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이 단어는 심리적 조작과 학대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배우자 사이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의료적으로, 인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임마누엘이십니다!

GCMi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2020년 1월 16일 호주 시드니에서 출범했습니다. GCMi가 설립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 네트워크와 기금 모금을 통한 구제 네트워크, 심지어 재교육과 2세 양육 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모인 4십만 불의 기금은 코비트-19 팬데믹의 광야에서 고통을 겪는 선교사님들에게 생수와 같았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는 각 위원회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위원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도의 시작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두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너진 경제와 정치적인 양극단의 분리와 최근의 터키 지진과 같은 끔찍한 자연재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와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27:13-14)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빛과 구원자요 보호자요 우리의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그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 확신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확신입니까? 현재 여러분은 힘들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빛, 구원자, 보호자이자 언제나 함께하시는 도우시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때때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시간과 인생의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내심을 갖고 모든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처한 곳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만 명 이상의 소중한 영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터키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재난을 훨씬 더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죄 가운데서 멸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CMI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방황하는 자녀들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볼 주님의 선하심입니까?

- 전 세계적인 위대한 부흥: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 예수님의 재림: 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23년은 전혀 어둡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매우 밝습니다! 가장 위대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을 주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주님의 귀한 뜻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아멘.
함께 외칩시다: 주님을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라!

Waiting for God to do a New Thing through Us

Jung Oh Gu (Busan, Korea)



I'm Pastor Jung Oh-Gu who is serving the CMI Overseas Mission Council and Busan Miraero Church. I'm pleased to serve as co-publisher of CMI Times starting with this issue.

I'm looking forward to new things that God will do at the historical new chapter of the current endemic time after 3 years' COVID-19 pandemic one. Looking back those 3 years, missionaries and overseas mission councils have closely communicated with each other, fellowshiped with each other through missionary reeducation, provided financial support in those difficult times, and prayed in unison.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networks every time I heard the news that even the small amounts of prayers for those missionaries in a remote area who had faced lonely and financially difficult times was like fresh rain in a drought to them. Thank you for sharing the missionary works that God has accomplished through the CMI Times magazine (published up to Issue 5) and making us work harder on the network.

Last year,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CMI Center in Myanmar was completed, and when the Ukrainian refugees and the Turkic and Syrian earthquakes occurred, CMI familie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raised emergency relief donations and supported them. We thank God for all of these. We also thank Him fo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signing between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and GCMI so that 10 Indian shepherds may receive scholarships and take the M.Div. course.

Last year's summer conference in Europe formed a worldwide mission trip team, including Korea (21 persons), the United States (12 persons), and India etc. Thank you for helping us prepare for the 2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through this.

For the celeb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CMI this yea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of “Calling” at Yonsei University Songdo International Campus from August 1st to 4th. We'd like to look back on the last 20 years during which we have gone through in the grace of God and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and pray for the next 20 years.

Just as the Triune God is united in love, I hope that campus ministries, churches, and missionaries in CMI may serve the Lord's will and desire as a community united by love.

For this, I hope that CMI Times may be used more preciousy in becoming a vessel for prayer and network.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 대하며

구정오 목사(부산 미래로교회)

CMI 해외선교 협의회와 부산 미래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구정오 목사입니다. 이번 호부터 CMI Times 공동 발행인으로 섬기게 되어 인사드립니다.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난 엔데믹으로 가는 동안 역사적 전환점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해외 선교협의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선교사 재교육을 통해 서로 교제하고 어려운 때 물질로 지원하며 합심 기도하므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지에서 외롭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때에 전해진 기도가 담긴 적은 물질이 마치 가뭄 속에 전해지는 단비 같았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CMI Times 지(5호까지 발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교사역들을 나누며 네트워크에 더욱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년 미얀마 CMI 센터 건축이 완공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튀르키와 시리아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과 전 세계 CMI 가족들이 긴급 구호헌금을 모금하여 지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워싱턴 대학과 GCMI가 MOU를 체결하여 인도 목자 10 명이 장학금을 받고 M.Div 과정을 밟게 된 것과 전 세계 수양회와 바이블 캠프를 축복하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작년 유럽 여름 수양회에는 한국(21명)과 미국(12명), 인도 등 전 세계선교 여행팀을 구성하여 2세들끼리 네트워킹이 이루어진 것이 감사 제목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20주년 국제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릇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CMI 20주년을 맞아 연세대학교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8/1-4일까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국제 수양회를 갖습니다. 은혜로 달려온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달려갈 20년을 위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신 것처럼, 대학과 교회와 선교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엮어진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뜻과 소원을 섬겨드리길 소원합니다. 이 일에 CMI Times 지가 기도의 그릇을 이루고, 네트워킹하는데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God Has Given Us the Great Commission

2023 GCMI General Assembly Report

Timothy Lee (Dallas, TX, USA)

*“Go into all th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
to the whole creation.”
- Mark 16:15 -*

The 4th Global CMI (GCMI) General Assembly was held as Zoom online conference for two days: February 11 and 18, 2023. Day 1 meeting for the General Assembly was held on February 11, 2023, at two different time zones: first for Asia and Oceania (convocation 1) and second for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Europe (convocation 2). Dr. Peter Chang, President of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delivered a keynote lecture on the subject of “Great Commission” at the Day 1 convocations. The theme of the lecture was that for the sake of the Great Commission the missionaries in CMI were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and suffered in a foreign land in tears and sweats, leaving their homeland, father’s household and relatives. The lecture revealed that God’s grand plan and love with the theme of the Great Commission flow through the Gospels and the Epistles. The LORD intends to bring salvation for all peoples through the gospel of the Christ. For this divine purpose the LORD God have called the missionaries in CMI and sent them all over the world. At times the missionaries in CMI have struggled and even felt overcome by the

overwhelming situations when walking on the narrow way in a foreign land and facing dire sufferings at various forms. This divine purpose of the LORD shined upon the hearts of the attendants through the lecture and reinvigorated the missionaries in reoriented life goals. A total of 160 people attended the convocation 1 from the Asia and Oceania region, with many leaders from I-Nation and B-Nation participating. The convocation 1 started with Missionary Samuel Lee of Australia as moderator. The order went this way: Missionary Paul Bang of Australia served the opening prayer, and the I-Nation CMI praises team led a dynamic Praises and Worship session. Missionary Mark Hong, GCMI President, delivered an opening address. The message made it clear that the founding purpose of GCMI was in line with IMB, the Southern Baptist Church. The opening address reported how GCMI had supported many missionaries, who were scattered in diverse nations and impacted by financial difficulties during the last Covid-19 period. With the passage of Psalm 27:13,14, the message encouraged the attendants to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and be careful to look up to the LORD God, because God would surely guide us in His goodness and grace in 2023. Following the keynote speech by Dr. Peter Chang as mentioned above, the

meeting proceeded with mission reports from each country: Staff Jeongwan Jang from Korea CM, Pastor David Lian from Myanmar, Missionary Jeremiah Geum from C-Nation, leaders from I-Nation and B-Nation, and Missionary Isaac Min from Australia in this order. These reports showed that the ministries were actively engaged in each region and country. And each GCMI committee reported their activities in pre-recorded videos: Media (Missionary Timothy Lee), Education (Pastor Jung Oh Gu), Next Generation (Missionary Abraham Lee), Law (Missionary Georg Park), Mission Support (Missionary Samuel Lee), Marriage (Missionary Pioneer Kim), Intercession and Prayers (Missionary Stephan Kang), Medical Mission (Dr. Daniel Shin). Finally, Missionary Abraham Lee of Poland, General Secretary of GCMI, led the announcement and united prayer session. The meeting was concluded with benediction from Pastor Jung Oh Gu of Busan Miraero Church in Korea.

The second convocation for North America, Latin America and Europe was held in the same format as the first meeting, with a total of 75 participants. Missionary Timothy Lee from the United States moderated the online meeting, followed by the opening prayer by Missionary Thomas Hwang from Germany. The Praises Team of Argentina CMI served the Praises and Worship session passionately. The meeting followed the identical format as the first convocation: the opening address by Missionary Mark Hong, GCMI President,

and the keynote speech by Missionary Peter Chang. There were reports from each mission field: Dominican Republic mission report (Missionary Nehemiah Park), Germany (Missionary Hudson Lee), Europe (Missionary Stephan Kang), North America (Missionary Isaac Koh), and South America (Pastor Gustavo Salas). Committee reports followed in a pre-recorded video format. Finally, missionary Abraham Lee led the announcement and joint prayer session. Missionary Peter Chung from the United States concluded the meeting with benediction.

The third and final convocation was held on February 18 with a total of 65 people as attendants. Missionary Isaac Koh of North America moderated the meeting. Moses Hwang in Melbourne CMI, Australia, led the Praises and Worship session and Pastor Geoff Luellen of North America prayed for the opening prayer. Missionary Isaac Koh had a brief report on the last GCMI General Assembly. General Secretary, Missionary Abraham Lee, check the quorum. It was announced that the bill passed at the General Assembly had a legal binding because the quorum was met with more than 20% of the active members in attendance according to the GCMI bylaw. Next, there was a vote for electing the vacant Vice General Secretary, and Missionary Timothy Lee of North America was elected with a majority vote. Next was a vote on amendments to the By-Law. Two amendments were proposed. The first was to revise the fiscal year to a period

of the calendar year: from January 1 to December 31. And the second was to set 10% of the budget as operating costs. Both amendments were passed with the majority of votes. Then there was a financial report by Missionary Zechariah Han from the United States and an audit report from Missionary Georg Park from Germany. Finally, Missionary Abraham Lee led the announcement and united prayer session. The 2023 GCM I General Assembly meeting was concluded with the benediction by Missionary Mark Hong, the GCM I President.

This General Assembly became an occasion to look back on the good works that God has accomplished through GCM I to the current stage. And the convocations gave us an assurance that God would work in the future through GCM I as He has done so far. All the glories and praises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저희에게 선교지상 명령을 주신 하나님

2023 GCM I 총회보고

이 디모데 선교사(미국, 달라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 막 16:15 -

제4차 Global CMI (이하 CMI) 총회가 2023년 2월 11일, 18일에 걸쳐 열렸습니다. 11일에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위한 일차 총회와 북미, 중남미와 유럽 지역을 위한 이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일차 총회와 이차 총회는 현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총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Peter Chang 박사님께서 "Great Commission"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섬겨주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왜 본토 친척을 떠나 이방 땅에서 눈물과 땀으로 고생하시는지 그 대답을 하나님의 지상명령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 만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사랑을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부르시고 세계 곳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방 땅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고생하시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라고 불평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분의 원대한 계획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을 위한 일차 총회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목자들이 많이 동참하여 총 16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일차 총회는 호주 Samuel Lee 선교사님 사회를 시작으로 호주의 Paul Bang 선교사님이 개회 기도를 섬겨주셨고 India CMI 찬양팀이 격동적인 찬양을 섬겨주셨습니다. GCM I 대표 홍마가 선교사님이 GCM I의 창립 목적을 남침례교단 IMB와 비슷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지난 코비드 19기간 동안 각국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27:13, 14 절 말씀을 중심으로 2023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위에 언급한 Peter Chang 박사의 특강 후 각국의 선교 보고가 있었는데 한국 CM에서는 장정완 간사, 미얀마에서는 David Lian 목자가, C-Nation 는 금 예레미야 선교사가, 인도와 방글라데시 현지 목자님들이, 그리고 호주는 Isaac Min 선교사님이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발한 복음 역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의 보고가 비디오 영상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미디어 (Timothy Lee 선교사), 교육 (구정오 목사), Next Generation (Abraham Lee 선교사), 법제 (Georg Park 선교사), 선교 지원 (Samuel Lee 선교사), 결혼 (Pioneer Kim 선교사), 중보기도 (Stephan Kang 선교사), 의료 선교 (Dr. Daniel Shin) 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CMC 사무총장이신 Abraham Lee 선교사님이 광고와 연합기도를 인도하셨고 한국 미래로교회의 구정오 목사님의 축복기도로 일차 총회 모임을 마쳤습니다.

북미, 중남미와 유럽 지역을 위한 이차 총회는 일차 총회와 동일한 포맷으로 진행되었고 총 7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차 총회는 미국의 Timothy Lee 선교사님 사회를 시작으로 독일 황토마스 선교사님의 개회 기도로 시작되었고 Argentina CMI의 찬양팀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섬겨주셨습니다. 일차 총회와 동일한 Mark Hong 선교사님의 GCMC 대표 설교와 Peter Chang 선교사님의 특강 후 각 선교지의 보고가 있었는데 도미니칸 공화국의 선교보고는 Nehemiah Park 선교사, 독일 선교보고는 Hudson Lee 선교사, 유럽 선교보고는 Stephan Kang 선교사, 북미 선교보고는 Isaac Koh 선교사, 남미 선교보고는 Gustavo Salas 목사가 섬겨주셨습니다. 그 후에 일차와 동일하게 각 위원회의 보고가 영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Abraham Lee 선교사님이 광고와 연합기도를 인도하셨고 미국 Peter Chung 선교사님의 축복기도로 이차 총회 모임을 마쳤습니다.

3차 총회 모임은 2월 18일에 있었고 총 6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미국 Isaac Koh 선교사님 사회를 시작으로 Melbourne

CMI 황토세님의 찬양이 있었고 미국 Geoff Luellen목사님의 개회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saac Koh 선교사님이 지난 총회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무총장 Abraham Lee 선교사님의 정족수 검사가 있었고 정족수 33%로 정관에 의해 정족수가 충족되기 때문에 오늘 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법적인 근거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다음에 공석중인 부사무총장에 대한 투표가 있었는데 미국 Timothy Lee 선교사가 과반수를 받아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정관(By-Law) 개정에 대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개정안이 발제가 되었는데 첫째는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로 개정하는 안건이었고, 둘째는 예산의 10%를 운영자금으로 설정하는 안건이었는데 두 개정안 모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통과 되었습니다. 그다음 미국 Zechariah Han 선교사님의 재정보고와 독일 Georg Park 선교사님의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선교사님이 광고와 연합기도를 인도하셨고 GCMC 대표 Mark Hong 선교사님의 축복기도로 2023 GCMC 총회 모임의 대단원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지금까지 GCMC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선하신 일을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GCMC를 통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THE GREAT COMMISSION

Dr. Peter Chang (President of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USA)

One of the theological motifs strongly related to Jesus' resurrection is his Great Commission. Before his ascension, Jesus commissioned his Eleven disciples as his apostles to be sent to the ends of the earth. Since it was his commission to them till the end time, it may have been termed as Great Commission. The accounts regarding this Commission are as follows: Mark 16:15-18; Matthew 28:18-20; Luke 24:46-49; and Acts 1:8. These accounts about the Great Commission are not exactly corresponding to each other. Also, beside these accounts there are other sources that are equivalent to these Great Commission texts. Let us look at each of them to have holistic understanding about Jesus' Great Commission so that we may obey it better and in a broader sense than just evangelism.

I. MARK 16:15-18

In the last chapter of the book of Mark,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to all creation. Whoever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but whoever does not believe will be condemned. And these signs will accompany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drive out demons; they will speak in new tongues;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and when they drink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people, and they will get well" (Mk 16:15-18). This command consists of four different parts.

A. Go into All the World

1. The Whole World as the Object of the Gospel

In the first part of Jesus' Great Commission in Mark. Jesus commanded and expected his disciples to go into the whole world (Mk 16:15). Just as God had all nations in his mind when he called Abraham (Gen 12:2-3), so did Jesus with his disciples. So, having a global vision for the gospel is the basic call of believers. John Wesley once said, "the whole world is my parish," so is it ours.

During his ministry Jesus though a Jew freely went in and out of the Gentile lands, performing the same miracles and giving the same teachings that he did in Judea (Mk 5:1-20; 7:24-30; 7:31-37; 8:1-13; 8:27-30). Without doubt Jesus treated both Jews and Gentiles with the same attitude. Nevertheless, the disciples may have considered his occasional travel to the Gentile lands as an aberration.

But with his resurrection Jesus now commanded the disciples not only to go to the Jews but also to go into the whole world. Jesus tried to show them that he was the Christ not only for Israel but also for all the Gentiles. The Great Commission challenged them to shed their exclusive ethnic identity and stand up and see the whole world as their field of actions.

2. Proclaim the Gospel to All Creation

The disciples had something very important and wonderful to give to the world—the gospel. They were to “proclaim” (“kerusso” in Greek) the gospel. This word was like announcing the completion of the redemption throug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as seen in Peter’s explanation of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on the Pentecost (Act 2:14-39), like Stephen’s careful review of God’s salvation history through the Scriptures or Philip’s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to the Ethiopian Eunuch (Acts 8:26-39).

3. Faith and Baptism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demands response from the hearers—to believe or reject, because it is the very divine measure, by which human destinies are determined—to salvation or to eternal condemnation, because it is God’s only and fin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humans, who are prisoners of the law of sin and death.

Those who believe can go through baptism. Since Mark does not show strong interest in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roughout the book, except in the case of Jesus’ baptism of the Holy Spirit, his being driven into the wilderness by the Spirit, or speaking against the Holy Spirit as an unforgiving sin, most likely the baptism here referred to the water baptism.

Mark took faith and baptism together. Therefore, it is an external expression of faith and baptism itself apart from faith

has no value for salvation. Baptism into a church without faith is an empty practice that does not avail the practitioner salvation.

4. Accompanying Signs

Jesus promised that their work for his gospel will accompany signs—casting out evil spirits, new tongues, picking up snakes without harm, immune to poisons, and healing (Mk 16:17-18). By nature signs are signs, not substance. The gospel is the substance, while these signs are useful external evidence of the gospel, like bonus. If these signs follow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that would be great and helpful. If not, as long as the gospel is believed, it all that really matters.

These signs still occur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especially where the gospel has never been known or where the renewal of the gospel is needed. In the places where many idols, superstitions, and strange spirits are dominant, the gospel produces signs to overpower their influences.

To Mark, the Great Commission meant the forceful and potent work of the believers through the gospel proclamation. If we follow Mark’s view of Jesus’ Great Commission, we expect powerful work with compelling signs through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II. MATTHEW 28:18-20

After his resurrection, Jesus told the disciples in the book of Matthew: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Most likely, the idea of the Great Commission was derived from this command.

A. All Authority Given to Jesus

The first thing Jesus in giving the Great Commission to his disciples was his authority. He explained to them that his resurrection was the proof that he now had the divine authority over all things (Mt 28:18), because he vanquished the strongest enemy, Death. Through resurrection he was enthroned as the King of kings. Therefore, now his commission was royal commission of the King. Therefore, it must be obeyed.

B.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s the King of kings, the Risen Jesus commissioned them to go and become disciple-makers of all nations.

1. Disciple-Makers

With Mark, people tend to see that they should be powerful evangelists, faith healers, effective preachers, etc. However, Matthew’s version of the Great Commission focused on something else—producing disciples. Why disciples? Or disciple-makers? What does it mean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ccording to Matthew, disciples are those who are to be taught and to learn to obey everything Jesus commanded (Mt 28:19a). What does “everything” imply here? Simply put, it is not only his deeds but also his teachings, such as the famous Sermon on the Mount, which some call the Constitutions of Jesus’ church. It tells believers what it means to be Jesus’ disciples and as disciples how they should live.

Matthew’s version of the Great Commission is deeply concerned about how to learn, grow, and live as Jesus’ disciples, more holistic than that of Mark is. Evangelism does not simply mean proclamation of the gospel, but it also happens through the testimony of the actual life of believers, as they make every effort to learn to live according to Jesus’ teachings and their corresponding life.

2. All Nations

Matthew’s gospel carries more Jewish characteristics than Luke and Mark. Jesus told the disciples not to go first to the Gentiles but to go to the lost sheep of Israel (Mt 10:5-6). Matthew’s Jesus sounded as if he came to be messiah only of the Jews. However, he also revealed his plan and vision for the salvation of all peoples.

The end of age will not come until the gospel is proclaimed to the ends of the earth (Mt 23:4). At the last day, Jesus will come as the Son of man to save the elect from the whole world (Mt 24:30-31; cf. Dan 7:13). Clearly Jesus showed his disciples as the final judge of the whole world.

The transition from Jesus' being the messiah of the Jews to that of the whole world is most clearly attested through Matthew's version of the Great Commission.

3. Baptis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atthew stated that those who chose to be disciples of Jesus must b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hat is the Trinitarian formula of baptism. It appears that in Matthew's time this Trinitarian baptismal practice was already practiced. This baptism must have been the water baptism. This practice reflects somewhat theologically developed church activities.

4. I Will Be with You

As Matthew named Jesus as Immanuel at his birth (Mt 1:23), Jesus again affirmed that he would be with them, that is the church to the very end of the age, at his final commissioning of his disciples. It means that Jesus will always be with his church. However, this church was not ecclesial organizations or institutions we have been so familiarized with as church in our modern day.

Jesus promised to be always with the Eleven disciples and the communities born through their disciple-making efforts, and these communities would be characterized by their faithful pursuit of learning to obey Jesus' commands also as Jesus' devoted students.

III. LUKE 24:45-49

A. The Gospel of Resurrection (Lk 24:45-46)

After his resurrection, Jesus appeared to his disciples and asserted that everything that had happened to him was the fulfillment of God's words (Lk 24:44). Opening their hearts, Jesus enabled them to understand what the Scriptures had said about him (Lk 24:45). He summed up the Scriptures into the gospel, that is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Lk 24:46). The gospel was the gist of the Scriptures.

B.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

Mark said that the disciples were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proclaim the gospel; and in Matthew they were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 Luke had a little different approach.

1. Repent and Be Forgiveness

Luke's emphasis was not on the gospel but on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 To be sure, the former was to be proclaimed because it was the foundation of everything, but Luke said that latter was to be proclaimed, which was more interested in what kinds of attitude people should have toward the gospel proclaimed (cf. Mk 1:14-15). Luke does not mention baptism here as Mark and Matthew did.

2. To All Nations

Having been born between his Jewish mother and Greek father, unlike Mark and Matthew, who were of Jewish

heritage, Luke was more conscious that Jesus' salvation was to include all nations. His genealogy that counted backward ends with Adam as the son of God (Lk 3:23-38), because Adam was the ancestor of all human beings.

3. The Disciples as Witness of the Gospel

Jesus told his disciples that they were to be witnesses of these things (Lk 24:48). The word "witness" ("marturion" in Greek). This word "witness" has its root in "martyr" in Greek word. The disciples were called to witness things about Jesus, which they heard from Jesus, saw, and experienced through him, to all nations faithfully, even to the point of death, if necessary. Jesus' commissioning of the disciples was a serious matter that demanded the commitment of their life.

4. Wait for What God Promised—the Holy Spirit

Jesus knew that witnessing his name was not a child's play, but it could be done only through spiritual power and enlightenment, which sinful human beings could not muster from within themselves. They had to go and proclaim repentance among those who did not know God and worship idols, and who held totally opposite, hostile, and corrupt values; they had to bring these people to Jesus, enlightening them to see what futile gods they worshipped and changing their hearts toward the Father of Jesus as their new God. For this, they would need more than human courage, persuasion, and wisdom. Knowing this, God promised to send his mighty help, that is the Holy Spirit (Lk 24:49).

In this sense, Luke's version of the Great Commission wa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Mark and Matthew. He is

very clear that Jesus' Great Commission will be possible only through the empowering and enlightening of the Holy Spirit. Therefore, it is God's doing, not human doing. However, Luke gives a more detailed and better developed Great Commission in his sequel.

V. BOOK OF ACTS 1:8

Luke's version of the Great Commission took a shape in his second book, Acts. This book resumes what his gospel left off, that is Jesus' command not to leave from Jerusalem but wait for what God had promised, which wa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cts 1:4-5).

Then the Risen Jesus gave the disciples another version of the Great Commission: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This command is as well-known as the one in Matthew 28:18-20. This version of Jesus' Great Commission differs from that of Matthew or Mark.

A. Power of the Holy Spirit

Luke understood that Jesus' Great Commission was primarily the work that could be accomplishe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ecause calling people to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 i.e., the redemption of sinners, was a deeply spiritual task which was possible only by God, as the Lord asserted,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my Spirit" (Zech 4:6b; cf. Isa 42:1-4, 1b; 61:1-3b).

It is also more likely that Luke rightly comprehended the implications of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on the Pentecost,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in church history. In the book of Acts, the Pentecost was like dam that burst into the human world and spread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even today.

With Luke, Jesus' Great Commission was the explosive work of the Holy Spirit. Therefore, the completion of Jesus' Great Commission does not depend on human ability, intellect, or tactics, but on the power and wisdom of the Holy Spirit. Therefore, regardless of ebb and flow of human history, Jesus' Great Commission will be carried out to the very end of the age.

B. Geographical Expansion

1. Progressive Geographical Spreading

Jesus in the book of Acts has given his disciples the Great Commission in a progressive geographical move.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 Acts 1:8 -

The starting point is Jerusalem; then from there Judea, which shared the same linguistic, cultural, and ethnic compositions. Then they were to go to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world.

However, the book of Acts displays how each transition was fraught with unexpected problems, including racism, cultural conflicts, religious antagonism, etc. The Jewish believers were due to their harsh treatment by the Gentiles coupled with religious customs and ethnic suspicion, were quite narrow-minded, defensive, and exclusive. It was not natural for them to move across these barriers and share the blessing of the gospel to the Samaritans or the Gentiles.

2. To Samaritans

Knowing that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 disciples to even think about proclaiming the gospel to the Samaritans or the Gentiles, the Spirit moved ahead

of the disciples. Philip one of the seven deacons of the Jerusalem church was scattered into Samaria, when the Jerusalem church was persecuted and dispersed, and proclaimed the gospel with great outcomes (Acts 8:4-8). Only then the apostles sent Peter and John to Samaria to investigate what was going on (Acts 8:14-17). The work of the gospel in Samaria was neither wished for nor expected, so it was reluctantly accepted by the Jerusalem church leaders. Despite their hesitancy, this work was important because it caused the crack in the Judaism of the disciples, which would eventually spill it open.

3. Paul the Apostle to the Gentiles

Philip initiated the breaking down of the barriers between Jews and Samaritans. Then he was used to proclaim the gospel message to the Ethiopian Eunuch. This act was a doubly important one. He was not only an unclean Gentile, but he was also physically unclean as a eunuch (Acts 8:26-40; cf. Dt 23:1). Philip proved that ethnicities or physical shortcomings did not matter before the Father of Jesus and that the Spirit welcomed them just the same as Jews and clean and holy people.

After these incidents of Philip, the Spirit began his work among the Gentile in full force. The instrument chosen for this purpose was a former Pharisee called Paul, specifically chosen as the Apostle to the Gentiles (Acts 9:15-16). God was already working among the Gentiles through many of his scattered servants, but Paul would be the central figure in his plan for the salvation of the Gentiles.

Later Paul stayed in the Antioch church, the missionary-sending church (Acts 11:19-30), from which he would later take three different trips to the Gentile world, proving that he was indeed the

apostle to the Gentiles (cf. Rom 1:5, 16; 3:29, etc.). For example, his crossing over from Asia to Europe would leave a long-lasting impact on the landscape of human history.

4. Peter's Vision (Acts 10)

While the Spirit was preparing Paul for the Gentile mission, he also prepared the hearts of the Jerusalem believers and especially those of the Jerusalem church leaders. God challenged them through Peter, a staunch Jew. God showed him all sorts of unclean animals in his dream and told him to kill and eat them. Peter naturally refused to do so, but God made it very clear, saying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s made it clean"

- Acts 10:15 -

Peter then went to the Italian centurion named Cornelius, proclaimed the gospel to him and his household, and baptized them (Acts 10:44). Then to his amazement,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Acts 10:44). This news astonished the Jewish, circumcised believers. They learned tha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could not be contained within the Jewish community, but it would spill over to all nations (Acts 10:45-48).

Luke's version of Jesus' Great Commission is most at home with us. His understanding of it has strongly shaped our view of the Great Commission.

VI. JOHN (20: 21-22; 21:15-17)

The gospel of John has its own version of the Great Commission in 20:21-22, and it also has a totally different ending

after Jesus' resurrection in 21:15-17. The former can easily be seen as John's version of the Great Commission, while the latter may not be categorized as a form of the Great Commission. Even so, it cannot be denied that it is Jesus' final charge to Peter and the ten disciples.

A. As the Father Has Sent Me (20:21-22)

In John, the concept of Jesus' being sent by God is repeatedly used, which is one of the major themes of the gospel. He sends out his disciples in the same way he was sent by the Father.

1. To Reveal God the Father

Jesus was sent by God for the primary purpose of revealing God the Father to the world so that they may know the one true God who can prove himself as such by giving those who believe eternal life (John 20:31; 1 John 4:9, John 7:29; 8:42; 10:31; 11:42; 17:21, 23).

Likewise, the disciples were sent by Jesus for the task of making God the Father known to the world as the one true God along with the Holy Spirit (John 15:26-27).

2. To Save and Judge

Jesus was sent to either save or judge the world (John 3:16-18). God the Father entrusted all his authority to the Son, the authority to give life or to judge (John 5:22). Like the Son of man in the vision of Daniel (Dan 17:3), Jesus the Son receive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and was appointed the judge of the living and the dead (John 5:27-29; 1 John 4:14; 4:10; John 3:17; 6:57).

Jesus intended to send out his disciples to bestow salvation to or to condemn people depending upon whether they believe him or not. Jesus' primary goal was not to condemn but to save, so he provided the only way of salvation through his sacrifice. When people reject to choose this only path to life, while all other paths lead to condemnation, they remain on that path of condemnation (John 3:16-18).

3. To Speak the Truth

Jesus was sent to speak the truth of God, that is the word of God. He himself was the Word of God prior to his incarnation (John 1:1-2). As the Word of God, he spoke only the truth (14:6; 3:34; 5:38; 6:29; 17:8). The truth must lead to life for it to be true. That which does not give life is not truth, no matter how right or good it may sound. It is a good idea but not necessarily truth.

For these purposes, Jesus equipped them with the Holy Spirit (John 20:22a). The Holy Spirit is the divine Spirit. They were to be furnished with the divine Spirit to carry out the divine task. With the Holy Spirit, they were also entrusted with the power of Jesus to forgive sins (John 20:22b). What authority, even to forgive sins! No human can do so, but when they were equipped with the Holy Spirit, they can. Forgiveness of sin was not meant for the disciples because of their official positions as Jesus' disciples. Their authority to forgive sins would come from being equipped with the Spirit of God.

B. Do You Love Me? (John 21:15-17)

Though this account was not given in the form of the Great Commission of commissioning and sending, it is the final charge of Jesus to Peter and the disciples who failed in following Jesus to death.

1. John and the Gentiles

John has only two explicit accounts that involve the Gentiles—10:16 and 12:23. In John 10:16, Jesus referred to "other sheep that are not of this sheep pen" (Jewish people). By this statement, he meant the Gentiles. Also, when some Greeks approached him, Jesus spoke of his hour to be glorified (John 12:23). The hour was the hour of his crucifixion (John 2:4; 7:6; 12:23). Jesus implied here that the Greeks were also beneficiaries of his death and resurrection, i.e., the gospel. Therefore, John's gospel envisioned the redemption of the Gentiles included in God's plan of redemption.

2. Peter's Confession of Love

When Jesus came back from death, Peter was ashamed, embarrassed, and dejected because he had denied Jesus three times despite his earlier promise to follow him even to death (John 18:17, 25, 27). So, Jesus approached him and asked him three times whether he loved him (John 21:15-17). Peter responded that he loved him and the Lord knew it too despite his apparent failure. Jesus acknowledged Peter's love for him.

3. Feed Jesus' Sheep as John's Version of Jesus' Great Commission

But Jesus challenged Peter to give his love for him to his sheep, which he had

failed to fully demonstrate during his trial and death, so Jesus commanded him, “feed my sheep” (John 21:15-17). Peter had another chance to prove his love for Jesus by taking care of his sheep. Jesus’ sheep included both Jews and Gentiles (John 10:16), and Jesus died for both of them (John 12:23).

4. The Nature of the Agape Love

John’s version of Jesus’ Great Commission was not expressed in geographical movement as in the synoptic gospels, but it is deeply rooted in John’s theological tenet of the agape love. First, agape love is loving anyone regardless of ethnic boundaries who is near us, and it is the most fundamental way of carrying out Jesus’ Great Commission.

The nature of the agape is well explained through the way Jesus dealt with Peter. Peter was to love Jesus’ sheep with the love, with which Jesus loved him by forgiving Peter of his wretched betrayal, restoring his failed heart, and establishing him as the shepherd of his sheep. This love knows no ethnic, geographical boundaries. It can reach anywhere and anyone. Perhaps John’s version of Jesus’ Great Commission was the most effective, powerful, and doable one, regardless of wherever we are, whenever we are, and with whomever we are. The greatest power of the Great Commission is the agape love.

VII. PAUL

A. The Apostle to the Gentiles (Rom 1:5; 15:15b-16, 18, 27)

Paul’s understanding of Jesus’ Great Commission was deeply personal, as seen in his description of his call:

“Through him and for his name’s sake, w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to call people from among all the

Gentile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 Romans 1:5 -

He held his apostleship to the Gentile as God’s gracious call to him. His call was a particular call and working for the Gentiles meant on the one hand a lot of unexpected and unknown challenges, linguistic, cultural, religious, etc., and on the other hand, the unfriendly and suspicious treatment from his own people, who were hostile and resentful toward the Gentiles.

Nevertheless, Paul was sure of his call: “...because of the grace God gave me to be a minister of Christ Jesus to the Gentiles. He gave me the priestly duty of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so that the Gentiles might become an offering acceptable to God,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 Rom 15:15b-16 -

These words elaborate what was stated in Romans 1:5.

B. Paul’s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His Apostleship to the Gentiles

As a theologically and biblically trained scholar of his day, Paul had deeper theological insight into his apostleship to the Gentiles. His insight came from understanding God’s salvation history that that began with Abraham.

1. Abraham the Father of Many Nations (Rom 4:16-17a)

Paul searched for the reason and purpose of God’s call to him. He found the clue from Abraham (Gen 12:1-3; 17:4-8; 22:15-18). When God called Abraham, he promised to not only bless him personally, but he also promised to make him a blessing, through whom all nations on earth would be blessed, which later was further elaborated as the father of many nations (Gen 12:2-3; 17: 17:4).

For Abraham to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he did not have to do anything, like having many children. In fact, he had a child with a younger woman (Gen 16), but God did not count it toward his plan. What he had to do was just maintaining his faith in God's promise (Gen 15:6) and Abraham did because of his deep trust in God's promise. God was bound to keep his promise to Abraham.

What was characteristic about faith was that anyone could believe in God regardless of their race, culture, ability, language, class, etc. Later God set Abraham's physical descendants apart by circumcision because God esteemed them as the carrier and the channel of God's promise of becoming a blessing to all nations (Gen 17:1-5). This privilege however backfired, causing his offspring to be proud, exclusive, and defensive, and they despised the Gentiles, God's creation. God's blessing did not flow over to the Gentiles, because it was stuck with the Jews. Thus, despite God's good intention the circumcision became a failure when the Jews held it as their badge of honor without faith as its foundation.

Paul discovered the truth that Abraham was to be a blessing to all nations, the Father of many nations, not through circumcision or law but through faith alone (Rom 4:16). Faith alone could unify all peoples, Jews and Gentiles, in Abraham. Faith alone could accomplish God's promise to Abraham.

2. The Lord the God of both Jews and Gentiles (Rom 3:29)

Since anyone could have faith, though not all had the law and circumcision, the God of Abraham who accepted him through his faith would be the God of anyone who had faith. If a Jew had faith, the Lord would be his God. If a Jew had faith and

in addition had the law and circumcision, the Lord would be his God. If a Gentile had faith without law and circumcision, the Lord would be his God. But if a Jew had no faith but had law and circumcision, the Lord would not be his God. The Lord is the God of both Jews and Gentiles who have faith (Rom 3:27-30).

3. Paul's Principle of Historical Theology

Paul also discovered, it seems, an interesting theological development by investigating the story of Abraham. Though he did not cite the text, God told Abraham that his descendants would go into exile into Egypt and return in fourth generation (Gen 15:16). The reason for their slow return was because the sin of the Amorites did not reach its full measure.

There an interesting principle of historical theology was discovered and further developed by Paul. The Lord is the owner of the land. He would lease it out to some people. But when their sin reached its full measure that God determined, he would evict them from the land and find another tenant for it. The basic principle is that God would use certain people, but their sin could lose them their privilege.

Similarly, Paul realized that Israel in their pride failed in becoming the blessing to all nations. Therefore, God abandoned them "for a while," and he saved the Gentiles in their stead. Then by blessing these Gentiles who had faith in him abundantly through salvation, God wanted make Israel envious of God's blessing to the Gentiles, which they lost due to their unbelief, so that they may return to God (Rom 11:14-16).

In this way, God will never forsake his chosen people, but he even uses their unbelief as the source of blessing for the Gentiles, whose blessing will ultimately lead to the salvation of the Jews.

VIII. PETER

A. Jesus' Great Commission Derived from Exodus 19:5-6

The apostle Peter expressed his idea of Jesus' Great Commission with the following words: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 1 Peter 2:9 -

His idea of the Great Commission did not come from Abraham, but it was derived from Exodus 19:4-6. Nevertheless, God's call to Israel as a treasured possession,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Ex 19:5-6) was in the same vein as the Great Commission derived directly from the accounts of Abraham (Gen 12:12-3). Abraham's personal call was applied to the nation Israel as a whole. Just as Abraham was loved by God, so was Israel, his descendants. Just as Abraham was to be a blessing for all nations, Israel was to be a kingdom of priest for all nations.

As a priesthood nation, Israel was to teach God's laws to the Gentile nations, which was embodied in the Ten Commandments (Ex 20:1-17) and the subsequent laws (Ex 21:1-40:38, etc.). As a priestly nation, Israel was to be a mediator between God and Gentile nations. Just as Abraham was to live according to God's will, so was Israel.

B. Believers in Jesus as New Israel

However, Israel had failed, and the apostle Peter saw that the blessing of God now came upon the believers in Jesus, the new

Israel. So, he saw God's gracious call to the new Israel. In so doing, Peter identified them as a new chosen people, whom they were chosen by God through their faith in Jesus, the Son of God. The believers were to be a new royal priesthood whose priesthood was to serve between the King of kings and his subjects. Their task of mediation was the most glorious one for any human beings. Their mediation was conducted based on the word of God. They had to tell people what the goodwill of the King was, i.e., the gospel, and how they should respond and behave as those who received such favor from the King, following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nd the laws of God. Such a living would make them a holy nation, whom God's favor remained.

This new Israel was chosen not because of their righteousness but because of God's one-sided grace. So, they would have no reason to be proud as the old Israel was. Everything given to them is privilege because they are born of God's grace—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nd God's special possession. The humility should characterize the life of this new Israel in all their life and activities (Rom 3:27).

C. Declaring the Praises of Jesus

These believers, the new Israel, were to tell the whole world about the wonderful work of God through Jesus the Lord, that is the gospel. The gist of their proclamation was how this Lord called them out of darkness into the marvelous light. They were to tell both their past darkness and the marvelous salvation work of the Risen Lord. They were to tell

the nations how and why they failed in the past; and how and why God forgave their sins and transformed them into God's beloved children through his grace. This is the story they were to tell the world and show what a wonderful blessing it is to believe in the Lord and his gospel.

They were to declare the praises of Jesus their savior. Peter was clear who was the main center of this gospel work, Jesus the Lord and his beauty. Through our life with the Holy Spirit we should not only proclaim but also demonstrate the beauty of the life with Jesus the Lord.

Peter saw the Great Commission as the work of declaring the mercy, beauty, and light of our savior Jesus the Lord to the world through proclamation of the gospel and through our holy life.

IX. REVELATION

A. The Risen Jesus as the Warrior King
Revelation depicts the Risen Jesus as the Warrior King as follows:

"I turned around to see the voice that was speaking to me. And when I turned I saw seven golden lampstands, and among the lampstands was someone like a son of man, dressed in a robe reaching down to his feet and with a golden sash around his chest. The hair on his head was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and his eyes were like blazing fire. His feet were like bronze glowing in a furnace, and his voice was like the sound of rushing waters. In his right hand he held seven stars, and coming out of his mouth was a sharp,

double-edged sword. His fa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all its brilliance."
- Revelation 1:12-16 -

B. Jesus' Weapon—the Word of God (Revelation 19:11-16)

1. Revelation 19:11-16 as the Revelation's Version of Jesus' Great Commission

In chapter 1, Jesus is portrayed as the mighty King who is ready to crush his enemies with his might. His portrayal is fearsome. However, the only weapon we can find in this picture is the sword that comes out of his mouth, symbolizing God's word (Rev 1:16). This Warrior-King image returns in chapter 19, where he is already waging a war along with his saints (Rev 19:11-21). The scene in Revelation chapter 19 is the Revelation version of Jesus' Great Commission. Though it is described in a military and belligerent fashion, in reality the war the Risen Jesus will be fighting is a spiritual battle of conquering the whole world through his word, the gospel.

2. Faithful and True

In Revelation 19:11-16, the Rider of the horse, who is the Risen Jesus, has two names. The first one is Faithful and True (Rev 19:11), which implies his faithful commitment to God's will and his unwavering obedience to God the Father. His death on the cross is the proof of his faithfulness. He is also faithful to the redemption of his people, even to the point of death.

The Risen Jesus is also true because he proved that he was God. As God, he is true in all things he has shown and told

people. What he has shown us is all true, the Kingdom of God, his Father as the one true God, the Holy Spirit, Eternal life, sin and death, eternal judgment against human history, resurrection of all to either life or to eternal condemnation, etc. In human life the only thing true is Jesus, his Father, and his truth.

3. The Word of God

The second name of the Risen Lord is the Word of God (Rev 19:13). Jesus is the Word of God, which is the embodiment of God's truth. God's greatest weapon is truth, and his Word is his truth. Truth is the greatest weapon in human life, too. Jesus fights the world with God's Word and triumphs. We often say,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but we can further say, "The Word of God is mightier than the sword." Fighting with truth is the most effective and worthwhile fight. The picture in Rev 19:11-16 is a powerful picture of Jesus the King who is subduing all peoples and nations through God's Word, not through the bloody wars.


Though the imagery of the Risen Jesus here is that of bloody warrior, the author used it only to emphasize the severity and fierceness of the spiritual battle Jesus is engaged in. We are not to be physically or emotionally violent. This imagery does not justify our use of brut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political, psychological, emotional, physical, verbal, etc. Our finest and most reliable weapon is the Word of God. So, Jesus' Great Commission should be conducted through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How we could transform the world through the Word of God should be our quest, which requires much endeavor to fathom the depth of God's word, as many of ancestors of faith had.

We must hold true to it without wavering or veering off from the truth that our greatest

weapon is the Word of God. Truth is our weapon to use. We must uphold it and live up to it faithfully, at times even to the point of death, as Jesus did. Such is the kind of attitude Revelation expects Jesus' followers to have. Frequently, we resort to worldly means to make church attractive, relegating the Word of God to the secondary importance. That may work temporarily. However, when we proclaim the gospel and establish churches, we must think as though we would build something that last until Jesus comes again.

On the contrary, our attitude toward the word of God has become too shallow and superficial. Everyone wants to make the serious death-defying and life-giving word of God into some kinds of nice sound bites or appealing catch phrases to attract people to our churches. We naturally assume that bringing people to church as saving them. The overall amounts of study many seminarians undertake are far less than those of business students or science students. Also, seminary students stay within the narrow boundaries of theology, their understanding is quite narrow. They are afraid to be shown as ignorant people to lay people, so they stick to their theology areas, remaining out of touch with intelligent laypeople. They are afraid to study anything else. How can their understanding the word of God expand when they stay in the same place and never go beyond it to have their theology and faith challenged and enhanced?

In order to be the warriors armed with the Word of God, we must prepare ourselves with the Truth of God. It can happen when our knowledge of the Word of God is challenged, refined, and sharpened through trials and difficulties. This way we can join the Great Commission parade of the Risen Jesus in Revelation 19:11-16 as his worthy soldiers.



2023 Oceania Summer Conference Report

Samuel Lee (Perth, Australia)

God led us to hold the Oceania Summer Conference at Philip Island Adventure Resort in Melbourne from January 17th to 20th, 2023. 70 people attended the conference. As a face-to-face conference held in 3 years after COVID-19, many people prepared the spiritual environment for the conference through prayer.

Through this conference, I'd like to look back on God's work and to share His grace together. First of all, it was a conference in which the work of His Word was dominant. When the Word worked, the door of the closed heart was opened and the work of repentance took place. A work of grace arose and heavenly joy was poured out to each person. People began to realise their darkness and moved into the light. Whether young or old, the work of faith and determination took place in front of the Word.

A total of 8 people shared their gracious testimonies. A sister who attended from Sydney truly repented of her sins of living without God and, above all, realized that her ex-boyfriend was her idol, and there was a work of grace in which she turned to God. And an elderly brother who attended from Melbourne gave up drinking and decided to live by faith for the salvation of his family.

Also, more than anything else, Darwin's Sarang Kim, who denied the existence of

God and suffered from deep depression and suicidal impulses in life, joined the conference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nd as she listened to the testimonies of many older sisters and brothers, her heart was opened and she had a desire to find God. This w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which worked through the intercession of many people.

Second, this conference became a historic conference in which the central axis of the Oceania ministry was moved to the 2nd generation. 5 out of 7 main lectures were delivered by the 2nd generation. And the second generation preached the words of the conference and now they preached the words better than the missionaries. It was a conference where the spiritual growth of the second generation and the power of their words were prominently displayed.

In addition, all progress and praise were graciously handled by the second generation and the younger generation. As a result, our missionaries had little to do during the conference. While I was attending the conference,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 missionaries had little things to do in all preparations and progress of the conference. It was a conference in which the second generation grew up and stood tall as the main characters of Oceania's history.

About 5 years ago, God gave us a critical heart about the succession of Oceania ministry and made us set the direction to steadily establish the second generation as main lecturers. And every year, the 2nd generation gave lectures, and now, 5 out of 7 lectures were preached by the 2nd generation.

Also, Grace Pang from Melbourne was in charge of the conference, and everything went smoothly and graciously like water flowing. Praise and worship team led by Moses Hwang from Monash, Melbourne was amazing. They served powerfully during the conference with spiritual praise. Through this conference, we saw that God was shifting the central axis of the gospel ministry of Oceania to the second generation.

At the Oceania General Assembly, Missionary Isaac Min was appointed as director for another 3 years, and Missionary Samuel Lee as treasurer for another 3 years. Among missionaries there was a general agreement that this three-year term would be a transition term to prepare the next term, in which the second generation would be director of CMI Oceania and one missionary would support him(her) as a co-director.

Thirdly, the feature of this conference was the change in the conference program. There was a change in the program to be with young people while maintaining the strengths of our mission organization. Gathering in small groups to write testimonies and sharing them is a great tradition of our mission organization. So, we tried to inherit and save this at any rate. So during the conference, it was a very gracious time for everyone to gather in small groups at the cafeteria and wrote and shared their testimonies with the words they received.

At the same time, we did Flying Fox, Giant Swing, and Games as programs that could contain young people that we hadn't thought of before.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the second-generation succession took place and the program was not centered on older missionaries, but was transformed into a program where young people could mingle and participate together.

As I watched the changes in the conference program, I think it was a program that sought new changes to include young people while preserving the tradition of good faith. I think this was a program with an amazing balance between tradition and change.

The Oceania Conference was always full of grace and had the work of the Word. As for the prayer topic, we pray that the Word of God that has been sown will be retained in the field of life and that continuous works of bearing fruit will take place with patience.

This Melbourne conference was so gracious that it was decided to hold another conference next year in Melbourne from January 16 to 19, 2024. We give thanks to all the co-workers in the faith scattered around the world who prayed for this conference, and all glory goes to God, the owner of this history.

2023년 오세아니아 여름 수양회 보고

이 사무엘 선교사(호주, 퍼스)

하나님께서 2023년 1월 17~20일까지 멜버른의 Philip Island Adventure Resort 에서 70명이 모여서 오세아니아 여름 수양회를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갖는 대면 수양회로 많은 분이 기도로 수양회의 영적인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 수양회는 말씀의 역사가 두드러진 수양회였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기쁨이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기 모습이 깨달아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냐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총 8명이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시드니에서 참석했던 한 자매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멜버른에서 참석했던 한 나이 드신 형제님은 그동안 마시던 술을 끊고 이제 자신의 가족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며 인생의 깊은 허무와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다윈의 김사랑이 성령의 역사로 수양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니 오빠의 간증을 들으며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분의 중보기도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둘째로 이번 수양회는 오세아니아 수양회의 중심축이 2세로 이동된 역사적인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주 강의 7개 중에 5개를 2세들이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세들이 수양회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이제는 선교사님들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였습니다. 2세들의 영적인 성장과 그들의 말씀 파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수양회였습니다.

또한 모든 진행과 찬양도 2세들과 젊은 세대가 은혜롭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선교사님들이 수양회 동안 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제가 수양회에 참석하면서 수양회에 모든 준비와 진행에 있어 이처럼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 없는 수양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2세들이 성장하였고 오세아니아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수양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 5년 전쯤에 역사의 계승에 대해 저희에게 문제의식을 주시고 꾸준히 2세들을 말씀 강사로 세우고자 방향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년 2세들이 주제 강의를 전하였는데 이제는 7개 강의 중에 5개를 2세들이 감당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진행도 멜버른의 Grace Pang 이 맡아서 모든 면에서 물 흐르듯이 부드럽고 은혜롭게 너무나 잘 진행하였습니다. 찬양은 멜버른 모나쉬의 Moses Hwang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영성있는 찬양으로 수양회 동안 힘있게 섬겨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수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세아니아 복음역사의 중심축은 온전히 2세 중심으로 이동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세아니아 총회에서는 민이삭 선교사님이 디렉터로 3년을 다시 섬기시게 되었고 이사무엘 선교사가 재정을 3년 더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특징은 3년 후 2세가 오세아니아 디렉터로 세움 받도록 이번 임기 3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자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3년 뒤에는 2세를 디렉터로 선임하고 한 분의 선교사님이 Co-Director로 Support 하면 좋겠다고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세째로 이번 수양회의 특징은 수양회 프로그램의 변화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우리 선교 단체의 장점은 살리면서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간증을 쓰는 시간, 그리고 간증을 소그룹으로 나누며 은혜받는 시간은 저희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 계승하고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모든 사람이 소그룹으로 식당에 모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간증을 쓰고 나누는 시간은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젊은이들을 담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Flying Fox, Giant Swing, 그리고 Games 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세로 계승이 일어나면서 프로그램이 나이 든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젊은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제가 수양회 프로그램의 변화를 보면서 좋은 믿음의 전통은 살리면서 젊은이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수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통과 변화의 절묘한 균형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세아니아 수양회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였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수양회였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붙들어지고 인내로 결실하는 지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멜버른 수양회가 너무 은혜가 있어서 내년엔 한 번 더 멜버른에서 2024년 1월 16~19일까지 수양회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수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세계에 흩어진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은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023 Argentina Summer Conference Report

Ruth Lee Salas (Buenos Aires, Argentina)

We give all glory and praise to God who allowed and led the Argentine Summer Bible Conference after 3 years since the COVID19 pandemic started!

CMI Church (El Camino) in Buenos Aires, Argentina held a summer conference for three nights and four days from February 2 to 5, 2023. Registration was easier than expected, perhaps because it was the first in-person conference within three years, and the brothers and sisters longed for it. The theme of the conference was “La Única Esperanza” (The Only Hope). Brothers and sisters from three churches attended the event: Buenos Aires CMI Church, Santa Fe CMI Church, and Florencio Varela y Quilmes CMI Church. Grandma Ilda, who has been working with indigenous children in Blancos, also attended the conference, and a total of 192 people (including Sunday school children) gathered to share the grace of the Word together.

As a preparation prayer for this summer conference, we held an intensive prayer meeting for two weeks from January 16, bringing the hearts of the brothers and sisters and missionaries one in heart and mind. God granted us the conference, filled with the Word, the Holy Spirit, and grace, by answering our united prayers, the intercessory prayers of many GCMi missionaries, and the intercessory prayers of Korean church pastors and

brothers and sister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ayers!

In this conference, Pastor Gustavo, the next-generation leader, and his co-workers worked together on all plannings, procedures, and progresses on their own initiative from beginning to end. All the leaders and brothers and sisters became one, preparing plays and special music programs and filling in each other’s shortcomings. We could see that God had been pleased and had done the great work of the Holy Spirit when everyone was of one heart and one mind and worked together.

Brother Nahuel delivered the opening message, based on the words of Isaiah (40:30-31), proclaiming that even a young man is tired and weary, and even a young man stumbles and falls, but “those who wait on the Lord” will gain new strength, and that he would live a powerful and daunting life like soaring eagles. He is a sophomore in college and has grown up, attending in his parents’ church since childhood. Although it was his first message, he digested the Word of God so deeply. His powerful message opened the conference in a quiet and yet powerful manner.

Brother Ronald delivered the 1st lecture, titled “the Hope of those who are Born Again” (John 3:1-16). He testified that

only who are born again will have hope for the future, and that there is absolutely no hope for little Nicodemus', who have pursued power, fame, education, wealth, and success on this earth as their ultimate goals in this life, unless they are born again of water and the Spirit.

Brother Carlos delivered the 2nd lecture, titled "the Road to Hope" (Hebrews 11:8-19), testifying to the lives of the ancestors of faith who lived as strangers and strangers on this earth with hope for the kingdom of heaven. It was a time to realize once again that life on earth is a temporary place where we stay for a while, and that our eternal home and ultimate hope is the heavenly city.

Sister Liliana delivered the 3rd lecture, titled "the Hope of Jesus' Disciples" (Luke 9:57-62). She challenged us by her message that in what attitude we who have been called should respond to this calling and hope, emphasizing that we must give our first priority to God and not be like a person who put his hand to the plow but look back.

In the 4th lecture, Brother José Suk preached a message titled "The Glory of Hope" (Philippians 3:7-14). Through Paul's confession, he testified that no matter how far we have come, we must not be content but run toward the goal. We all realized that like Paul, we had to run toward the goal of knowing Jesus Christ and becoming like Him.

Overall, the Word was proclaimed in a calm manner, but the Holy Spirit powerfully

worked in us and pierced our hearts deeply like a sharpened knife, brought us to repentance, and gave us new resolutions. And the themes of the conference, "The only hope," "Jesus Christ," and "God's kingdom," were well pointed out throughout the messages. Because of this heavenly hope, all the attendants decided to live the life of a disciple of Jesus on this earth, the life of a holy stranger like Abraham. Also, like Paul, we wanted to love Jesus, who is our goal even more, and made a decision of running towards the Lord for the prize of the heavenly calling.

After the messages, the presentation of testimonies continued. Five people were appointed to share their testimonies according to the conference theme, and another five people to share their life testimonies. Most of them had been enslaved to sin due to sex, drug addiction, broken relationships, etc., but through the study of the Word, they met Jesus and thanked God for setting them free to live as new creatures. Thank God for accomplishing the work of repentance and restoration among us through the presentation of their testimonies.

- Presentation on theme (5 people): Sister Kathy, Sister Florencia, Sister Gissit, Brother Gabriel, Sister Milagros Ar.
- Presentation of life testimonies (5 people): Sister Sheyla, Brother Matías, Sister Kelly, Brother Tomás, Missionary Ruth

Especially many teenagers and young people in 20s attended this conference, and they could see the hope of the next generation throughout it. In addition, the leaders of the three newly started churches, Florencio Varella & Quilmes Church (Missionary Andres Lee), Los Blancos Church (Sister Ilda), and Santa Fe Church (Brother Juan Pablo Yeram Lee) gave their mission reports (Please see the Appendix below). Hearing how God has been working and guiding them from the beginning of their churches to the present challenged many brothers and sisters and made them have a desire to be used in the work of the gospel.

Through this conference that took place after three years since the pandemic, we became one and enjoyed the fullness of God's grace and joy with the living hope of the heaven.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missionaries, pastors from Korea, and brothers and sisters who prayed for Argentina's ministry and this summer conference. And I give thanks and praise to the faithful and merciful God who heard our prayers and worked beyond what we asked for and what we thought.

<Appendix> The Summary of the Mission Reports and Prayer Topics

1. Florencio Valera y Quilmes Church (Missionary Andres Lee)

On March 7, 2021, Missionary Andres & Rebekah Lee planted a church with two families living in the Florencio Barella & Kilmes area. Despite the daily increase i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of

COVID-19 in Bueno Aires at that time, he made a decision to carry out the ministry through the words of John 4:35 given by God and opened the church on March 7, 2020. However, after a few months, the church had to be temporarily closed due to the increase in cases of coronavirus.

Now, by the grace of God, they are serving online Bible studies and prayer meetings, and Sunday services at church. Every Sunday 10 to 20 brothers participate in Sunday worship, and they are growing in their faith through Bible study and prayer meetings. From May 2022, they started a Korean language course to evangelize college students. The class started with 7 people, but now 2 people remained. Among them, Brother Marcos has continued to participate in Sunday worship from the Christmas service in 2022 until now, and now he is giving the church a lot of joy and comfort through faithfully doing 1:1 Bible study. For the campus ministry of Jauretche University, which is the church's main ministry, the missionaries often visit the campus to preach the Word to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ey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neighbors to evangelize and invite them to Sunday worship services. The Bible study with the Valella family and the Quilmes family has been suspended due to various circumstances since COVID-19, but they want to start the Bible study again after the conference. Also, they are going to have the worship service at 1 PM on Sundays in the Quilmes area in addition to the worship service at 6 PM in the church.

<Prayer Topics>

1. May many souls be saved and great leaders, who have a good influence over this city, be raised up.
2. For every Sunday sermon, Bible study, and Wednesday online prayer meeting
3. For the evangelization of the Jauretche campus
4. To invite new people through Korean language class
5. Quilmes ministry: For Sunday Bible study that begins after the conference and for the salvation of many souls
6. May Each brother & sister have 1:1 study with one person this year
7. May all church members pray for 20 minutes every day, meditate on the daily bread, and read the first chapter of the Word for spiritual growth

2. Los Blancos Church (Sister Ilda)

Sister Ilda was born in Formosa, northern Argentina, and lived a poor and meaningless life. At the age of 20, she recklessly went to Buenos Aires to try a new life. She worked as a housemaid and met one guy and lived together with him, having a daughter. After seeing that he was addicted to gambling, she broke up and raised her daughter by herself. While living a hard life, she went to church at the invitation of her younger sister and personally met the Lord. When her daughter grew up, studied, married, and became independent, she returned to her native province of Formosa at the age of 50. She attended one local church but was not satisfied with it due to the sermons. While she was praying to find another church, God gave her a heart to evangelize the area. Formosa is one of the poorest provinces in Argentina and is in great need. Then, at the end of the year every year, she used to come to Buenos Aires from her hometown

to stay with her daughter. One year, through the introduction of her friend, she attended the church service of the late missionary Juan and got to know him and started helping his ministry of the evangelization of the indigenous people. Also, a Korean deacon from that church donated some money to help her build the church building, so she bought building materials little by little. Then she heard the news that Missionary Juan had passed away during his visit to Korea. She was so sad, and her heart ached, and she was helpless. However, before Missionary Juan passed away, God, who is always faithful, made her start a one-on-one online Bible study with Missionary Sarah Kim in Buenos Aires, and let her receive the Word of God. Through her help, now she is preaching the Word by opening a Bible school for indigenous children in the Salta area. Pastor Gustavo made a proposal to build the church building, and with the help of the CMI Church in Buenos Aires, the construction started in May and was completed in August. Currently, the church is holding a prayer meeting every 3 days a week (Friday-Sunday) and a Bible school every Saturday. Please pray for the Los Blancos Church.

<Prayer Topics>

1. May Sister Ilda be strong physically and spiritually (she lives 2 hours away from the church)
2. May the hope and vitality of Jesus be delivered to the indigenous children who have lost their dreams through Sister Ilda.
3. For weekly prayer meeting (Friday-Sunday) and Bible school every Saturday
4. Pray for a pastor who will evangelize the indigenous people

5. For church building construction (restaurant, church house construction)

3. Santa Fe Church <Brother Juan Pablo Lee (The son of Missionary Noah & Obdulia)>

Since Missionary Noah Lee and Missionary Obdulia got married in 1999, they had done the ministry together with senior missionaries at the CMI Church in Buenos Aires. Then in October 2004, they planted a church in the Santa Fe area. It started as a home church, but with God's help, the number of members gradually increased and since 2017 the church has been well established. The church is 9 blocks away from the School of Law and Natural Sciences, 20 minutes away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30 minutes away from Universidad Nacional de Litoral (UNL), and close to 3 middle schools. Initially many brothers and sisters came but they were not well rooted in their faith. But now God planted the roots of faith in the hearts of some brothers little by little. Now, about 15 to 20 people are participating every week, and they are having 5 cell groups and Sunday school. The missionary's family closed the clothing business where they worked for the past 20 years. Since this year they are serving the ministry as fulltime pastors.

<Prayer Topics>

1. For the missionary's Sunday Worship messages (Words of Nehemiah)
2. May brothers and sisters, who have been attending church for more than 10 years, invite at least one new person and serve him or her through 1:1 Bible study: Liliana (16 years), Victor (16 years), Gabriella (13 years), Yeram (22 years), Tommy (14 years), Nico (14 years), Raphael (10 years), etc.

3. For the work of inviting new people to the Sunday worship service and each festival
4. For the spiritual growth of the new members
5. For raising the disciples of Jesus
6. May his son, Ye-ram Lee (Juan Pablo Lee), successfully complete his speech therapy degree and master the Korean language.
7. May his daughter Ye-Joo's health (kidney transplant)

2023년 아르헨티나 여름수양회 보고

이 룯 선교사(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COVID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아르헨티나 여름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CMI 교회 (El Camino)는 2023년 2월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여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3년 만에 야외에서 가지는 수양회여서 그런지 형제자매들이 수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등록도 생각보다 쉽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양회 주제는 “La Única Esperanza”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참석은 부에노스아이레스 CMI 교회, 산타페 (Santa Fe) CMI 교회, 프로렌시오 바렐라 & 킬메스 (Florencio Varela y Quilmes) CMI 교회 총 3개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북쪽 살타 주, 로스 블랑코스 (Los Blancos)에서 원주민 어린이 사역을 해오던 일다 할머니 자매님도 이번 수양회에 참석하여, 총 192명(유년주일학교 포함)이 모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위한 준비기도로 1월 16일부터 2주간 형제자매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집중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합심기도와 GCM! 많은 선교사님들의 중보기도, 한국교회 목사님들, 형제자매들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셔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수양회를 허락해주셨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양회는 차세대 리더인 구스따보 목사님과 동역자들이 자립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획, 순서와 진행을 합심하여 섬겼습니다. 모든 리더, 형제자매님들이 하나가 되어 수양회 전부터 연극, 특송 등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현장에서 부족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었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심해서 동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성령의 역사를 이뤄주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회 말씀으로 나우엘(Nahuel) 형제님이 이사야 말씀(40:30-31)을 통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며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힘차고 벅찬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나우엘 형제는 대학교 2학년이고 유년 주일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나온 교회에서 자란 형제인데, 그의 첫 메시지였지만 너무나 말씀을 깊이 소화하고 증거하여 수양회의 포문을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열었습니다.

주제 1강은 로날드(Ronald) 형제님이 “거듭난 자의 소망”(요3:1-16)으로 거듭난 자만이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서 권력, 명예, 학문, 경제적인 부,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 온 작은 니고데모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 2강은 까를로스(Carlos) 형제님이 “소망에로의 길”(히11:8-19)로 하늘 나라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증거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정류장과 같으며 우리의 영원한 분향, 소망은 하늘의 도성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 3강은 릴리아나(Liliana) 자매님이 “예수님 제자들의 소망”(눅9:57-62)을 증거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이 소명과 소망에 응답해야 하는지 잘 증거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쟁기를 잡은 자로서 뒤를 돌아 보지 않아야 함을 증거했습니다.

주제 4강은 석호세(José) 형제님이 “소망의 영광”(빌3:7-14)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자만하지 않고 꺾대를 향해 달려가야 함을 증거해주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의 유일한 꺾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함을 새롭게 다짐케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이 잔잔하게 선포되었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주셔서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의 심령에 깊은 찔림을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결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주제인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하늘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 제자의 삶으로,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또 바울처럼 꺾대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게 해 주시고 주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길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이후 소감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수양회에 주제소감과 인생소감 발표강사로 각 5명을 세워주셨습니다. 대부분 가족문제, 이성문제, 마약중독 등으로 죄에 묶여있다가 말씀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예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 내용이었습니다. 소감 발표를 통해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이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주제소감 발표(5명): 까띠(Kathy) 자매, 플로렌시아(Florencia) 자매, 지싯(Gissit) 자매, 가브리엘(Gabriel) 형제, 밀리그로스(Milagros Ar.) 자매
- 인생소감 발표(5명): 셰일라(Sheyla) 자매, 마티아스(Matías) 형제, 켈리(Kelly) 자매, 토마스(Tomás) 형제, 롯 선교사

이번 수양회에는 특별히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하여 차세대 소망을 볼 수 있는 수양회였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세 지구, 플로렌시오 바렐라&킬메스 교회 이안드레스 선교사님, 로스 블랑코스 교회 일다 자매님, 산타페 교회 이후안 빠블로(이예람) 형제님이 역사 보고(붙임 참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지를 들으며 많은 형제자매님이 도전을 받고 복음 역사에 쓰임 받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허락해주신 이번 수양회를 통해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늘의 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사와 여름 수양회를 기도해주신 모든 선교사님과 본국 목사님,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한 것,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역사하신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붙임> 역사 보고 요약 및 기도 제목

1. 플로렌시오 바렐라 & 킬메스(Florencio Valera y Quilmes) 교회 (이안드레스 선교사님)

2021년 3월 7일에 이안드레스 선교사님과 이레베카 선교사님께서 플로렌시오 바렐라 & 킬메스 지역에 사는 두 가정과 함께 교회 개척하셨습니다.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부에노스아이레스 확진자가 매일 증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4장 35 절 말씀을 통해 사역을 결단하고 2020년 3월 7일에 교회를 여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자 증가로 인해 교회를 임시적으로 닫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으로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예배에 10~20 명의 형제가 참여하고 있고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통해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 한국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7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2명이 남았습니다. 그중 마르코스 형제가 성탄 예배부터 지금까지 주일예배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지금은 1:1 성경공부를 하며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 주 사역인 하우레체(Jauretche)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위해 대학을 자주 방문하여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주일예배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렐라 가정과 킬메스 가정과의 성경 공부를 코로나19 이후 여러 사정으로 중단되었는데 수양회 후 다시 성경공부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주일 6시에 드린 예배를 추가로 킬메스 지역에서도 주일 1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도제목>

1.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이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리더들이 나오길
2. 매주 주일 설교, 성경 공부, 수요일 온라인 기도회를 위해
3. 하우레체(Jauretche)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4. 한국어 수업을 통한 새 양 초청을 위해
5. 킬메스(Quilmes) 사역: 수양회 후 주일 성경공부 시작,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6. 교회 형제들이 올해 한 명씩 1:1 말씀 공부할 수 있기를
7. 전 교인이 매일 20분 기도, 일용할 양식 말씀 묵상, 말씀 1장 읽기를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해

2. 로스 블랑코스(Los Blancos) 교회 (일다 자매님)

일다 자매님은 아르헨티나 북부 포르모사주에 태어나서 가난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20세 때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자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무작정 상경을 하여 파출부 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다가 남자를 만나 동거하다가 딸을 낳게 되었고 남자가 카지노 노름에 중독된 것을 보고 헤어져서 홀로 딸을 키우며 힘든 생활을 하던 중 동생 초청으로 교회에 나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딸이 자라 공부도 마치고 결혼도 하고 자립하자, 50세가 되던 해에 고향인 포르모사(Formosa)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역 교회에 다녔지만, 말씀 설교에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포르모사(Formosa) 주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던 중 해마다 연말엔 딸과 함께 지내려고 고향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오는데 그때 친구 소개로 고(故) 후안 선교사님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후안 선교사님이 원주민 복음화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교회 나오던 한국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조금씩 해주셔서 건축재료를 사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후안 선교사님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한국 방문 중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후안 선교사님 소천하시기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김사라 선교사님과 일대일 온라인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살따 지역 원주민 아이들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열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스다보 목사가 교회 건축 제안을 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CMI 교회의 도움으로 지난 5월에 본당 건축을 시작하여 8월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주 주 3일 (금~일) 기도모임, 매주 토요일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스 블랑코스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일다 자매님이 영육 간으로 강건하도록 (교회에서 2시간 거리에 거주)
2. 일다 자매님 통해 꿈을 잃은 원주민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소망과 생명력이 전해지길
3. 매주 기도 모임(금~일)과 매주 토요일 성경학교를 위해
4. 지역 원주민에게 말씀 전할 목사님을 보내주시길
5. 교회 건축(식당, 사택 건축) 공사 진행을 위해

3. 산타페(Santa Fe) 교회 <이후안 빠블로 형제님(이노아 선교사님, 옵둘리아 선교사님 아들)>

1999년 한국에서 온 이노아 선교사님과 옵둘리아(Obdulia) 선교사님의 믿음의 결혼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CMI 교회에서 시니어 선교사님들과 협력선교를 하시다가 2004년 10월 산타페 지역을 개척하셨습니다. 개척 시, 가정 교회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성도 수가 증가하여 2017년부터 지금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법대, 자연 과학대에서 9 블록, 가톨릭대에서 20분, UNL(Universidad Nacional de Litoral)에서 30분 거리에 있으며 3개의 중등학교와도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형제가 오고 가며 영적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마음에 조금씩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셔서


현재 매주 15~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5개 셀 그룹과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은 지난 20년 동안 일했던 옷가게를 닫고 올해부터 풀타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제목>

1. 선교사님의 주일 예배 말씀 역사(느헤미야 말씀)
2. 교회 참석한 지 10년 이상 된 형제자매님들이 각 1명 이상의 새

- 양초청과 1:1 말씀을 섬겨 주님 역사에 동참하도록: 릴리아나(16년), 빅토르(16년), 가브리엘라(13년), 예람이(22년), 토미(14년), 니코(14년), 라파엘(10년) 등
3. 주일 예배와 각 절기를 통한 새 양 초청 역사
 4. 새로운 양들의 영적 성장 역사
 5. 예수님의 제자 양성
 6. 아들 이에람(이후안 빠블로)의 언어치료 학부를 잘 마치고 한국어 정복할 수 있도록
 7. 딸 이에주의 건강(신장 이식 수술)





2023 Cordoba (Argentina) Summer Conference Report

New Life Church, Full Church

Juan Kim (Cordoba, Argentina)

From January 20th to 22nd, New Life Church (29 attendees / Heonseop Shin (Elijah), Shinyoung Cho (Hannah) Missionary) and Chungcheong Church (12 attendees / Kim Jeong-woo (Juan) and Seo Seong-ha (Graciela) joined together to hold a conference. 14 children also attended. I'm going to share the work of God which I witnessed in this conference.

1. Good environment

It wasn't the first time I'd been to Bolsa, but I didn't know such a place existed. The panoramic view and well-groomed lawns and trees seemed to welcome and comfort us who were tired of life. The road to the riverside for the baptism ceremony on the last day made me feel like I was in a familiar forest in Korea. It was also a pleasure that there were almost no mosquitoes even in midsummer.

2. Beautiful Service

The brothers of New Life Church prepared lunch and dinner, and the brothers of Chungcheong Church prepared breakfast. I was moved by the leaders who prepared meals for 50 people, set the seats, and even washed the dishes. On the last day of the schedule, I washed the dishes with Missionary Elijah Shin at lunchtime. I think I had never washed more dishes in my life than this. Every

night just after meetings, Hannah, Carlos, Elinda, and Kata gathered and discussed for over an hour what was lacking in that day and how to serve better the next day.

3. Glorious Works of God's Word

The opening message on the first day was given by Brother Oracio. He testified through the words of John 21 that Peter's despair, recovery, and healing work were being reproduced in his own life. For the theme lecture, Missionary David Park served 3 worship services under the theme of "The Church, the Bride of Jesus." His message deeply touched our hearts, turning our eyes to the Lord who made a covenant with us, wanted a relationship of love, and promised to come again. On the evening of the second day, Missionary Juan Kim delivered the message on the Lord's Prayer.

4. Fruit of Life

On the last day, Missionary Elijah Shin baptized Sister Anna. Moderate rain the previous evening raised the water level of the river a little, making it suitable for the baptism ceremony. Beachgoers were having a good time by the river, and it was an impressive time with the praise and prayers of the members and the proclamation announcing the birth of a new life.

2023년 아르헨티나, 꼬르도바 여름 수양회 보고

새 생명 교회, 충만 교회

김후안 선교사(아르헨티나, 꼬르도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시내에서 40분가량 거리에 있는 볼사라는 지역(체 게바라의 고향에서 10분 거리)에서 새 생명 교회 (29명 참석 / 신헌섭(엘리아), 조신영(하나) 선교사)와 충만 교회 (12명 참석 / 김정우(후안), 서성하(그라시엘라))가 연합하여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아이들도 1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느낀 은혜를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I. 좋은 환경

볼사를 처음 가본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탁 트인 전망과 잘 가꾸어진 잔디와 나무들이 삶에 지쳐있는 저희를 받아주고 다독여 주는 듯했습니다. 마지막 날 세례식을 위해서 강가로 가는 길은 한국의 낮익은 숲속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모기가 거의 없는 것 또한 즐거움이었습니다.

II. 아름다운 섬김

새 생명 교회 형제들이 점심과 저녁을 준비하고 충만 교회 형제들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50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자리를 세팅하고 설거지까지 섬기는 리더들의 모습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정이 끝난 마지막 날 점심에 신엘리아 선교사님과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많은 분량의 접시를 닦은 것 같습니다. 모든 모임이

끝난 저녁에는 하나, 까를로스, 엘린다, 까따가 모여서 무엇이 부족 했는지 다음날은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한 시간이 넘게 의논하고 준비했습니다.

III. 영광스러운 말씀의 역사

첫날 개회 말씀은 오라시오 형제가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베드로의 절망과 회복, 사명을 통한 치유의 역사가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증거 했습니다. 주제 강의를 박다빛 선교사가 “예수님의 신부, 교회”라는 주제로 3번의 예배를 섬겼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은 김후안 선교사가 주기도문 말씀을 전했습니다.

IV. 생명의 열매

마지막 날에는 신엘리아 선교사님이 안나 자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적당하게 내려준 비가 강물의 수위를 조금 높여 줘서 세례식을 거행하기에 적합했습니다. 강가에는 피서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 그리고 새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선포가 어우러진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2023 로마 유럽 CMI 리더수양회 보고

원폴리캡 선교사(이탈리아, 로마)

1월24일~2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계승'이란 주제로 유럽 CMI 신년 리더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위해 2022년 11월 2일부터 독일 15개 지역과 유럽 CMI 19개 지역 총 34 교회들이 교회별로 감사, 기도제목을 단독방에 올리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2020년 초부터 시작한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가진 첫 대면 수양회였습니다. 기도로 돌파(Breakthrough)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리더 수양회에는 유럽 각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40명과 10명의 로마 선교사님을 포함하여 총 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탈리아는 겨울이 비가 오는 우기인데 수양회 1주일 전까지 날씨 예보는 비가 오고 흐린 날씨였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하였는데 24일부터 28일 수양회까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씨로 축복해 주셔서 1박 2일의 외부 일정과 2박 3일 실내 수양회 기간을 통해 풍성한 교제와 섬을 얻고 영적 재충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전체 일정보다 일찍 도착한 선교사님들은 로마 선교사들 가정에서 머물며 사귀고,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피로 물든 거룩한 로마 땅을 밟으며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24일 저녁 6시 세라핌 수양관(Seraphicum Holiday House)에 집을 풀고 유럽에서 25~40년 넘게 삶을 드러온 맘으로 주님을 섬긴 선교사님들과 반가운 포옹을 하고 저녁식사후 수양회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개회예배는 유럽 CMI 대표인 리투아니아의 강스테인 선교사님이 요한1서 1:1~4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과의 교제,

선교사님들과의 사귀고 기쁨이 충만한 교제가 넘치는 수양회가 되길 바란다고 증거하셨는데, 수양회 전 일정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시고 사귀고 기쁨이 넘치는 수양회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24일 저녁 말레이시아 KPM에서 사역하는 고루카스 선교사님이 'BST'(돌파구 전략훈련)을 주제로 '오순절 이후의 선교 전략과 교회의 4국면'이란 주제로 전도 특강을 섬겨 주셨습니다. 선교현장에서 재생산을 위한 복음전도 전략으로 비 무슬림 지역에서는 C2C (Creation To Christ) 전략을, 무슬림 지역에서는 ANY3 (anyone, anywhere, anytime), 그리고 T4T (Training For Teaching) 전략을 소개하였습니다.

25, 26일은 1박 2일 일정으로 아씨시, 피렌체, 피사, 오르비에토를 경유하는 2천 리 가까운 외부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5일 오전 아씨시를 방문하여 8백 년 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가난과 결혼한 프란체스코의 신앙 발자취를 돌아보며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수양회를 모두 마친 후 원하는 사람들만 여행하던 패턴에서 이번에는 외부 일정도 전체 일정에 포함해 진행하였습니다. 50인승 대형버스로 이동 중에 헝가리의 김바울 선교사님의 강의와 선교사님들의 다양한 간증과 찬양, 말씀 암송, 흘러간 BC-song까지 어우러진 종합 힐링 패키지여행을 하였습니다. 가이드인 원 폴리캡 선교사님의 유머 넘치는 베스트 가이드 인도로 버스 안이 웃음바다가 되고 37명의 선교사가 방문하는 도시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개회예배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젊음과 물질과 생명을 드러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시듯 하나님께서

풍성한 교제와 맛있는 음식과 재미있는 여행과 최고의 날씨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27일엔 초청 강사이신 이찬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의 내적 변화, 디아스포라 목회자를 위한 제자훈련'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2001년 8월에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서 시작한 제자양육 프로그램으로 19기에 이르기까지 8백여 명의 제자를 양육한 현장 검증된 사역의 노하우를 기초로 제자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DNA를 기반으로 한 '제자훈련의 네 가지 핵심'을 통해 복음 자체의 완결성을 확신하고 재인식하며 그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되어 다른 부수적인 방법과 스킬을 찾던 데서 복음 그 자체로 돌아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복음의 완결성을 통해 우리의 어려움과 모든 과정이 복음의 완결성의 한 과정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이와 환경조건에 관계없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확신 가운데 복음 DNA가 들어있는 성경말씀 암송과 고백과 결단이 있는 매일 QT를 통해 거룩한 영적 습관을 형성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결단을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전 한 시간 수양회 처음으로 성경중에서 15절을 선별하여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선교사님이 자발적으로 나와 성경을 암송하며 큰 은혜를 끼쳤고, 이를 통해 성경 암송을 하고자 많은 선교사님이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엔 "계승"이란 제목으로 폴란드의 이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창15:13,14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못별 같은 자손을 주실 것과 그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주시고, 나중엔 큰

재물(영적 자산)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승리의 비전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유럽 선교 50년 역사1세대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이요, 승리와 비전의 선포였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큰 영적자산을 이끌고 나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선교사님들이 자서전을 써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기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곧이어 에스토니아의 김기드온 선교사님의 인도로 이방 땅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2세와 3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2, 3세대에게 어떤 영적 자산을 계승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8일 오전엔 각 사람이 수양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두 아쉬워하며 다음 수양회를 기대하며 6일간의 수양회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든 선교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성경공부에 기초한 1:1 제자양성을 통해 복음의 DNA를 전달하고, 자비량 선교의 유산을 남기며,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의 공동체를 계승시킴으로 유럽에 저희들과 2, 3세대들을 통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로마 선교사님들께서 가정을 열어 숙식을 제공하고 모든 여행 및 수양회 프로그램을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양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섬기신 회장단과 은혜로운 말씀과 전도, 제자양성 특강으로 섬겨주신 강사님들과 여러 부분에서 섬기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죄와 영적 무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희들을 유럽 땅 이방인들 가운데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Argentina Report

October 2022 - February 2023

Ruth Lee Salas (Buenos Aires, Argentina)

이 룯 선교사(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El Camino Church (Buenos Aires, Argentina)

크리스마스 성탄 특별 예배 (December 18, 2022) Christmas Special Worship Service

구스따보 목사님의 누가복음 2장 4절~16절 말씀을 통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구유에 오셔서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가족, 지인들을 초청하여 몇 달 동안 형제자매님들이 준비한 연극과 합창 등을 통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Through the message on the gospel of Luke 2:4-16 by Pastor Gustavo, we held a special service to commemorate the birth of Jesus, who gave up the glory of heaven and came to the manger to save sinners like us. In addition, family members and acquaintances were invited to our worship service to enjoy the joy of Christmas together through plays and choirs prepared by the brothers and sisters for several months. We were giving praise and glory to our Lord Jesus Christ.

한인의 날 행사 BUENOS AIRES CELEBRA COREA 참가 (December 4, 2022)

현지 인파가 약 10만 명 모여든 한인의 날 행사에 처음으로 CMI 교회 부스를 설치하여 한글 이름 써주기 이벤트를 통해 교회 소개와 새 양 초청 역사를 기대하며 진행했습니다. 종교 단체 부스로 유일했으나 단지 교회 초청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한류 문화에

익숙한 현지인들에게 한국 근대사(문화)와 그 배경에 한국 교회 세계 선교의 성장과 경제 발전의 관계가 있었음을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제작, 배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역할도 더하여 많은 인파가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교회 젊은 청년들과 아르헨티나 CMI 교회를 소개하고 초청하게 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At this year's Korean Day event, where about 100,000 locals gathered, a CMI church booth was installed for the first time. It was the only booth for a religious organization. However, it did not focus only on invitation to church, but promoted Korea culture to locals familiar with the Korean Wave culture through the brochure, which we made and distributed, introducing modern history(culture) and its backgroun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of Korean church world missions and economic development. God led a large crowd to come to our booth. We give all thanks and glory to the Lord for introducing our CMI Churches in Argentina and inviting people with young members of our church.

Los Blancos Church (Salta & Formosa, Argentina)

살타 지역 Los Blancos 교회 어린이 성탄 첫 예배 (December 22, 2022)

The First Christmas Children Service at Los Blancos Church in Salta

작년 8월에 교회 건축 후 지역 원주민 어린이

대상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일다(Ilda) 자매님이 말씀을 전하며 아이들과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CMI 교회에서 대표로 마리아 모랄레스(María Morales) 집사님이 참석하였고 예배 후 모교회에서 기증받은 옷과 신발을 아이들에게 옷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After the church was built in August of last year, the first service was held for local indigenous children. Sister Ilda, who pioneered the church, preached the Word and shared the joy of the birth of Jesus with the children. Deaconess María Morales attended as a representative from CMI Church in Buenos Aires. After the service, they shared the love of Jesus by distributing clothes and shoes donated by CMI church in Buenos Aires to the local children.



With the Three Hundred Men!

CMI I Mission Report

President of BCD

Shepherd Shanky (I-Nation)

"The Lord said to Gideon, 'With the three hundred men that lapped I will save you and give the Midianites into your hands. Let all the other men go, each to his own place.'"

- Judges 7:7 -

Praise and thanks to God for his wonderful blessing upon us! Seeing our brothers and sisters bright and smiling face, I could find God's blessing to us. I want to report I ministry of South Asian Conference VII and current works we are carry on.



From our yesterday's message we learned about "A Mighty Warrior!" and from today message we will learn how God raises the mighty warrior as "a sword for the Lord!" God raised Gideon's three hundred soldiers to fight against the Medianites. They fought them very bravely. They took out their sword for the Lord. I pray that we all of us may be raised as Soldiers for Bible India Ministry and fight for the Lord!

The year 2023 started with "South Asian Conference VII" which was a leaders conference attended by 491 leaders. Co-workers from USA, Germany, Korea, Taiwan, Bangladesh, and Hyderabad, Pune, Assam & Bangalore in India joined the conference. The Title of the conference was "Gideon's 300 Soldiers" from Judges 7:7.

In September, 2022, we turned virtual ministry to ministry in person. Our Sunday worship service number has fallen 800 from 1300 going through Covid 19. We lost 500 members during last two and half years. We felt very sorry to God for having lost such a great number of people. We wanted to find a strategy how to recover it. As we pray, God has shown the way that we may focus on 300 stronger leader ministry. At present, we have 170 leaders. With 300 leaders, we may be able to serve 3,000 ministry.

Main Lesson I "DEBORAH, A MOTHER OF ISRAEL" (Judge 4:1-5:31) was delivered by Shepherdess Kumkum. She is pursuing by Shepherdess Kumkum. She is pursuing on a Ph.D course at Yonsei University with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She delivered the message that she herself would not remain as a housewife but a servant of God for Indians. Main Lesson II "A MIGHTY WARRIOR!" (Judges 6:1-

40) was delivered by Shepherd Pial of Bangladesh. He delivered how narrow minded person changed to be a servant serving all Bangladesh and the world. Main Lesson III "GIDEON'S THREE HUNDRED SOLDIERS"(Judge 7:1- 25) delivered by Shepherd Pravin, director of Hyderabad. He delivered that we should be alerted to make the people revive spiritually. Closing Message "You Good and Faithful Servant!"(Matthew 25:21)was delivered by Shepherd Mark from Frankfurt, Germany.

This was to fulfill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Isaiah: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bore our diseases."
- Matthew 8:17 -*

Jesus has taken up infirmities and diseases of our young brothers and sisters. In the year 2023, with Matthew gospel, we feel Jesus' grace and mercy on us. We pray this grace may be spread to the entire world.

Ceremonially, we had a few gatherings; in January - Marriage Ceremony, in February -Soldiers' Day Service, in March -Mission 23 Korea & Taiwan etc.



I. Annual Marriage Ceremony

Every year January 26 is our marriage day. This year two couples married. Shepherd Nishant and Shepherdess Nisha who is studying Ph.D course in Taiwan tied their knots. Shepherd Nishant will be going to Taiwan in April.

Another couple, Shepherd Sanjay and Shepherdess Neha tied and left for pioneering Bangaluru after marriage.



II. Mission Korea and Taiwan 2023

God showed a new direction to go, be trained and pioneer in Korea and Taiwan. Some members already went to Korea and Taiwan for their Ph.D and M.A. courses.

Right after the marriage Shepherdess Nisha went to Taiwan to continue her PhD studies, shepherd Nishant is also preparing to go to Taiwan in the month of April to co-work with Shepherdess Nisha to serve Taiwan ministry through his admission in Masters. Shepherd Anand also got admission in Taiwan in Masters programme in National Tsing University.

This year we are praying to send 5 of our leaders to Korea. Shepherd Sunny, Shepherdess Khushi, Shepherd Ajay, Shepherd Deepak and Shepherdess Shanti have applied t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r Korean Language course and God is answering our prayer. Five of them all got admission. They will continue for their higher studies.

We pray God may use them greatly to raise disciples in Korea and Taiwan by English service.

BANGALORE MISSION

Shepherd Sanjay and Shepherdess Neha also left for Bangalore right after their marriage with a clear direction to pioneer the state of India. Shepherd Sanjay left his job in Delhi and joined a company in Bangalore mainly with the heart of raising disciples in Bangalore.

FAMILY CHURCHES and INDEPENDENT CENTERS

Family Church is the branch churches of CMI started by the seniors specially to reach parents who came to believe in the Lord through our leaders. Currently there are 5 family churches in Delhi; Noah Family Church, Mt. Sinai Family Church, Abraham Family Church, Mark Family Church & New Hope Family Church. These churches are served by our pastors and seniors of our mission and new dying souls are being added to their number by the grace of God.

Apart from Family Churches, Independent center concept was introduced for married couples for their learning of having an independent spirit to serve Jesus mission. After learning 7 years in students' ministry, we call it SSS (seven years spiritual seminary), they go out to pioneer their own centers.

We have 6 independent centers in Delhi served by 6 couples. We pray that these independent centers may be pillars for CMI India ministry. Their number keeps increasing.



DELHI MINISTRY

In Delhi we have 27 Centers which are led by directors and directresses of respective centers apart from Independent Centers and Family Churches. By the grace of God after covid we were able to recover our regular Sunday Service number from 800 to 1100 and we are praying this year we may cross more than 1500 Sunday service attendance. Our main focus is on teaching Word of God diligently and raising disciples through obedience to God's Word by teaching 3000 1:1 studies.

I. Team Ministry

At the moment we have 4 discipleship groups for brothers & 3 Sisters discipleship groups Abraham 24, Moses 24, Gideon 24 & Samuel 24, and Mary Magdalene A, Mary Magdalene B & Mary Magdalene C. There is also a

discipleship group for married couples, the name of the group is Abraham & Sarah group.

Apart from these we are now focusing on helping our next generation groups of brothers and sisters, Timothy 24 which has 45 members in it and Luke 24 which has 37 members and many more with learning desire are joining these groups to be disciples of Jesus.

II. Education Ministry

Now is admission time for B.A. B.Sc. and M.A., M.Sc of universities. We are focusing on higher education for all the members who should be intellectual leaders for campus ministry.

At present, 47 members for B.A. and 15 M.A. candidates are preparing their entrance exam for universities. For their coaching class, scholarship is being provided.

III. Himalaya Conference

Now our focus is on June Junior Leader's conference 2023 which will be held in June 11-25. The title is "You are the Messiah" from Matthew 16:1-28. Every two nights and three days each team will have 10 speakers. Through this conference we are praying to raise many junior spiritual leaders for the Lord's work in India. We are praying 800 members participation. They will be divided into 5 teams.

Please participate in praying for us to glorify God by achieving our prayer topics:

- To raise 300 GBM Leaders by the end of this year.
- To teach 3000 1:1 Bible studies every week.
- To have 1500 regular SWS members every week.

- To raise 60 BA, 20 MA and have 5 PhD students this year.
- To discipline Timothy 24 and Luke 24 batch to be disciples of Jesus.
- Shepherdess Kumkum to complete PhD this year.
- Shepherd Singh and Shepherdess Anna to have good health and to lead Jesus mission.

President of BCD
Shepherd Shanky



Dominican Republic Ezra School News

박경원(느헤미야) 선교사 (도미니칸 공화국, 산티아고)

박느헤미야 선교사가 홍마가 선교사께 전한
카톡 뉴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

사라 사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저는 여지껏 호주에서 보내는 헌금이 GCMI가
교사 월급으로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매달 1200불이 저희가 교사 월급에 필요한
금액이 었거든요.

미래로 교회와 호주 CMI가 에스라 학교 교사
월급을 힘껏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호주 선교사님 한분 한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에스라 학교가 주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편지

황돈연 선교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주안에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이곳은 아침 온도는 3~4도, 낮 온도는 9~12도 정도로 아침저녁은 아직 쌀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교통이 마비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한국보다 봄이 찾아오는 속도는 늦지만, 이 동토의 땅에도 봄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러시아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았는데 현재의 이런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러시아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로서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자주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순박하고 의리가 있습니다. 현실을 잘 모르면서도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러시아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했던 예수님의 궁핍이 이 땅에도 가득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강대국인 미국이나 EU 혹은 중국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성도들에게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기도라고 이야기하며 매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 이후에 세르게이 형제는 매일 기도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회의 성도들은 매일 저녁 9시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파되어 결국에는 로마가 복음화되었습니다. 현재의 러시아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러시아 땅에서 역사해서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알렉산드르 전도사님의 부인 올가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은 분입니다. 이분과 일대일로 성경을 공부하며 대화하다가 토요일에 모여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가 사모를 교회 전도부 부장으로 임명하고 토요일에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첫모임을 하고 전도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신 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지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나 자매는 자기 친구인 나타샤 자매를 주일에 초청했고, 세르게이 형제는 콘스탄틴 형제와 베로니카 자매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인도된 형제자매들이 성경공부를 통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올레샤의 남편 그레고리는 교회 आयु화 등에는 참석했지만, 주일예배에는 잘 오지 않았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변화되어 주일에 아내인 올레샤와 딸 베라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와 일대일로 성경을 공부하는 안나 자매가 초청해서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다른 안나 자매도 한국어만 배우지 않고 주일예배에도 참석하고 앞으로는 성경공부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매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시던 시몬 이바노비치 할아버지가 퇴원해서 주일에 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연세가 90세가 넘으시고 몸도 아프신데 퇴원하자마자 바로 교회에 올 정도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알렉산드르 전도사님은 매주 충성스럽게 주일 찬양인도를 하고 매주 예배 전 짧은 5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달에 1번 주일 설교를 합니다. 재활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러시아 정부를 통해서 땅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적합한 곳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재활센터에 필요한 것들을 친히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의 둘째 수진이는 이번 3월에 복학하였습니다. 남은 1년 반의 대학 생활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첫째 인우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주셔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주 러시아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하도록 기도해주시옵시오. 그리고 이곳 장로교노회의 교육 및 전도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연해주에 있는 현지교회들에 유익이 되는 세미나와 교육을 잘 준비해서 연해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빨리 끝나고 평가가 찾아오도록
2. 재활센터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들(땅, 건물, 재정 등)을 허락해 주시도록
3. 영광교회가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4.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5. 알렉산드르 전도사님이 좋은 사역자로 자라도록, 올가 사모가 동역을 잘 하도록

6. 세르게이 형제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일군으로 쓰임 받기를.
7. 수진이에게 건강을 주셔서 남은 3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8. 황인우 믿음생활, 직장생활 승리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9. 황둔연 선교사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러시아어 설교를 잘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10. 정경선 선교사가 건강하고 성령충만하고 기도생활 잘하도록



로마에서 온 선교소식

원대식(폴리캡) 선교사 (이탈리아 로마)

안식년 3개월 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3월 3일~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북부 가르다 호수 근처에서 포스퀘어교회 보드멤버 4가정이 부부 동반으로 모여 2박 3일 쉼과 사귀기를 가졌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1박2일 일정으로 독일 뮌헨에서 제빵사로 일하며 홀로서기 하는 큰아들 심방을 다녀왔습니다. 왕복 1,200km 정도 이탈리아 구간은 승용차를 이용하고, 독일까지는 버스를 타고 왕복 13시간을 다녀왔습니다. 큰아들과 하루를 보내고 뮌헨에 계시는 선교사님 덕에서 하룻밤 지내면서 사귀기를 가졌습니다.



(주: 일 년에 투어를 통해 오천 명가량 관광객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예술을 통해 예수님과 복음을 간접적으로 소개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영육 간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과 교회 주변 환경정리를 하며 땀 흘린 빵을 먹도록 돕고, 그분들이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돕고 있습니다. 빈첸조 집사님이 10년 넘게 살았던 컨테이너에서 탈출해 안정된 숙박시설에서 거주하며 4월부터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간식을 준비해 지역주민과 청소년들 대상으로 외부사역을 섬기게 됩니다. (책임자 빈첸조 집사, 고호세아 선교사) 이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7일~19일엔 2박3일 총회 겸 목회자, 리더모임이 있어 또다시 북부 베로나에 다녀왔습니다. 영혼구원과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함께 일하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풍성한 사귀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도량친 김에 가재 잡는다”고 자동차로 오가며 이탈리아 토스카니 지역과 베네토 지역 아름다운 곳들을 둘러보며 기도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립하고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선교생활 30년 삶의 동선이 확장되면서 제 삶의 악보에도 작은 쉼표들을 몇 개 찍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 4~5일은 바티칸시국 박물관과 성베드로성당 관광가이드로 자립하며 기존하던 오병이어 사역

보이는 성과와 열매 없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던 제 삶에 하나님께서 안식의 기간을 통해 쉼표들을 찍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동역자님들과 현지 리더들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탈리아 로마와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큰 영광과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심령에 함께하시길 기도하고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razie!

튀르키예(터키) 재난 구제헌금을 모금하면서

한사가랴 선교사(미국, 위스칸신 라크로스)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지역에 7.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월 7일에 생생한 현장 소식을 튀르키예 이요셉 사장을 통하여 캐나다 토론토의 김요셉 선교사가 먼저 CMI North America에 전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선교사가 구제에 대한 뜻을 비쳤고, Global CMI 홍마가 회장은 구제헌금을 준비해야 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2월 9일 새벽에 세인트루이스의 김에스더 선교사가 CMI North America에서 먼저 자발적인 모금운동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토론토의 김요셉 선교사의 조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모금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 2월 9일에 CMI North America 고이삭 회장의 승인을 얻고, Global CMI 회장단에서 "자발적으로 하되 구제와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CR (대륙대표자)에게 동의를 얻어, 2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모금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7일에 Global CMI의 이아브라함 사무총장과 '세계선교지원위원회' 이사무엘 위원장이 튀르키예 이요셉 사장을 Zoom 미팅에 초청하여, 위원회 멤버들과 수 시간 동안 현장 소식을 듣고, Q&A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난민수용소 집 2개 건축비로 재난협회에 \$10,000, 생필품 조달비용으로 이요셉사장에게 \$4,000, 구호활동비용으로 이호진 사장에게 \$2,000을 포함하여 \$16,000을 집행한다.

구정오 목사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 CMI(경주)에서 튀르키예로 \$20,000이 직접 송금되어, 2023년 3월 16일 현재, 한국, 북미, 호주, 유럽(독일), 남미, 인도, 미얀마에서 총 \$41,125이 모금되었으며, 그중 \$36,000이 집행되었습니다.

차후 현안 과제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들을 돌보는 문제라고, 이요셉 사장은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모금활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얀마, 인도, 아르헨티나 동역자들이 헌신적으로 동참하여 뜨거운 사랑을 전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 3월 31일 현재 총 모금액(약정헌금 포함)은 \$41,874 입니다.

편집자 주: 한사가랴(Zechariah Han) 선교사는 현 GCMC 재정위원장이시고, 위스칸신 라크로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GCMi 구조 헌금을 받은 후 터키 주재 이요셉 사장님 보고서

이요셉 사장님(터키, 이스탄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 마태 25:40 -

사랑하는 GCMi 형제 자매님들께

터키 이스탄불에서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터키 동남부와 시리아 지역에서 지난 2023년 2월 6일 새벽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3월 20일 현재 50,000여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참담한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망자가 100,000명을 넘어갈 것이라 말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재해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국 대학의 모든 기숙사를 지진 피해 가정을 위해 오픈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천만 개의 임시가옥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진 텐트 지역인 하란과 안디옥 지역에 홍수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를 더욱 참담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웃인 시리아 북부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메르신에는 45만 명의 지진 이주자로 인해 도시 전체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임시 텐트촌에서는 화장실이 없고 식수와 음식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두려움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스탄불 인근지역에서 4.8의 지진으로 인해 이스탄불로 이주한 많은 지진 지역 주민들이 더욱 두려워하고 있고 언론은 연일 이스탄불 지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라고 터키 동남부 교회 연합의 리더들이 하나님께 묻고 대안으로 하나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함께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진 지역과 천 km 이상 멀리 떨어져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동남부 현지 교회 리더들은 절망, 슬픔, 궁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말없이 드러내는 일이 터키 교회 공동의 목표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협력으로 터키 교회는 앞장서서 긍휼의 하나님이나 나타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미주와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GCMi 선교사님들의 참여로 인해 감사합니다. 먼저는 한인회가 구성한 ‘지진 피해지역 컨테이너 건립위원회’에서 급하게 200개의 컨테이너 한국마을을 세우는 일을 추진하고 있어 그 일에 GCMi 이름으로 2동의 컨테이너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컨테이너를 위해 미화 만 달러를 구호금으로 전달하였으며 완성이 되면 꾸준히 저희가 두 가정을 심방하며 돌보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미화 사천 달러는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과 현지에서 자신의 교회를 오픈하여 창고화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긍휼 사역을 하시는 터키 목사님과 최모 사모님(CCC 출신, GMP 소속)이 섬기는 메르신 교회의 긍휼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유럽 GCMi의 몇몇 분들이 하신 구호 헌금으로는 두 컨테이너에 필요한 에어컨과 주방 기구를 구입하는 일에 쓰일 예정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경주 선교교회, 광주 동광교회 포함)들이 함께 해주셔서 미화 약17,000불은 가능한 만큼의 컨테이너 건립과 고아원 방문 등으로 섬기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아드야만, 안디옥, 이스켄데룬, 카라만마라쉬, 말리티아, 아다나, 메르신 지역에서는 다수의 한국인 사역자와 많은 구호단체가 여러 모습으로 지금도 섬기고 있는 현장을 중개해 주고 있고 필요한 물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공훈 역사에 잘 참석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공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일에 도구가 되도록 늘

깨어 있겠습니다. 또한 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 민족 가운데 편만히 나타나고 새 생명을 덧입는 기쁨 충만한 생명의 역사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터키 민족의 슬픔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훈을 나타내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23년 3월 18일
이요셉, 마리아 드림



안디옥 시내의 지진 현장



이스탄불 총영사관 구호금 전달식



공훈사역을 하는 동남부 형제자매들 (출처 터키 동남부 교회 협의회 보고서에서)

2023 CMI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Next Generation

장정완 한국 CMI 대표(한국, 서울)

올해는 CMI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본국과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회복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 19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개인과 공동체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국내 캠퍼스 개척과 섬김을 위해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온 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물질로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해외 선교지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1~4일까지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MI 20주년 기념 국제 수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The Calling”이라는 주제를 통해 마가복음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선교사명을 마음에 새롭게 영접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수양회를 중심으로 우리 CMI 공동체가 나아가갈 새로운 방향을 잘 잡고, 새 길을 열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캠퍼스의 다음 세대와 해외 선교지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세워지고 어우러지는 수양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수양회 이후, 8월 7~10일(3박 4일)에는 해외에서 참석한 2세대들과 현지 리더들과 함께 국내 투어(서울-경주-부산-서울) 일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교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동역자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믿음의 역사가 세워지길 기도하며 국제 수양회에 초청합니다. 또한 국제수양회를 위해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MI 20주년 국제 수양회 준비를 위한 기도제목

1. 수양회 준비과정 및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캠퍼스 선교와 해외 선교 정체성을 잘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찾고 따를 수 있도록.
2. “The Calling” 주제 말씀이 전체 수양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3. 주제 강사들과 아침 기도회 강사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한국 학생 목자들, 해외 현지 목자들과 2세대)
4. 대표 소감 강사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한국, 해외)
5. 전체 준비팀이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를 감당하도록(장정완, 김형석, 구정오, 고양주, 형준우, 서은철, 홍마가, 이아브라함)
6. 실무 준비팀으로 섬기는 본국 캠퍼스 간사들과 학생 목자 준비팀이 잘 구성되어 구체적인 섬김을 준비할 수 있도록.
7. 대륙별 담당자와 2세대, 현지 리더들의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대륙별 찬양팀 섬김이 이루어지도록.
8. 전체 등록 역사를 잘 섬기기 위해 대륙별 담당자들이 세워지고 또한 필요한 모든 물질이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9. 해외 참석자들의 항공편과 필요한 재정이 준비되고, 안전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10. 수양회 장소와 모든 환경 준비 가운데 영적인 환경이 잘 예비 될 수 있도록.



인사말

박중용 한국 CMI 이사장(한국, 서울)

온 동네에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피는 계절입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도 이젠 거의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CMI 가족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와 헌신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CMI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수양회가 한국 송도에서 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20년을 준비하는 징검다리 수양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임이 계속 캠퍼스 복음역사와 세계선교를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며 환영합니다.



Global CMI

Representatives

Global CMI Representatives

I-nation

Prakash Singh

C-nation

Jeremiah Kum

Korea

Jung Oh Moses Gu

Europe

Stephan Kang

USA

Isaac Koh

Germany

Hudson Lee

South America

Gustavo Salas

Australia

Isaac Min

Global CMI Officers

President

Mark Hong

General Secretary

Abraham Lee

Vice GS

Timothy Lee

Treasurer

Zechariah Han

Audit

Georg Müller

CMI Times

Publisher

Mark Hong & Jung Oh Gu

Editor-in-Chief

Timothy Lee

Date of Publication

April 10th, 2023

Design

Mercy Kang

Website

globalcmi.org

Contact Office

2021 Sorrento Ln.

Lewisville, TX 75077

(608)772-0943

*Please help support Global CMI by contributing to the GCMI Fund Raising Account.

Chase Routing #: 075000019

Account #: 600866583